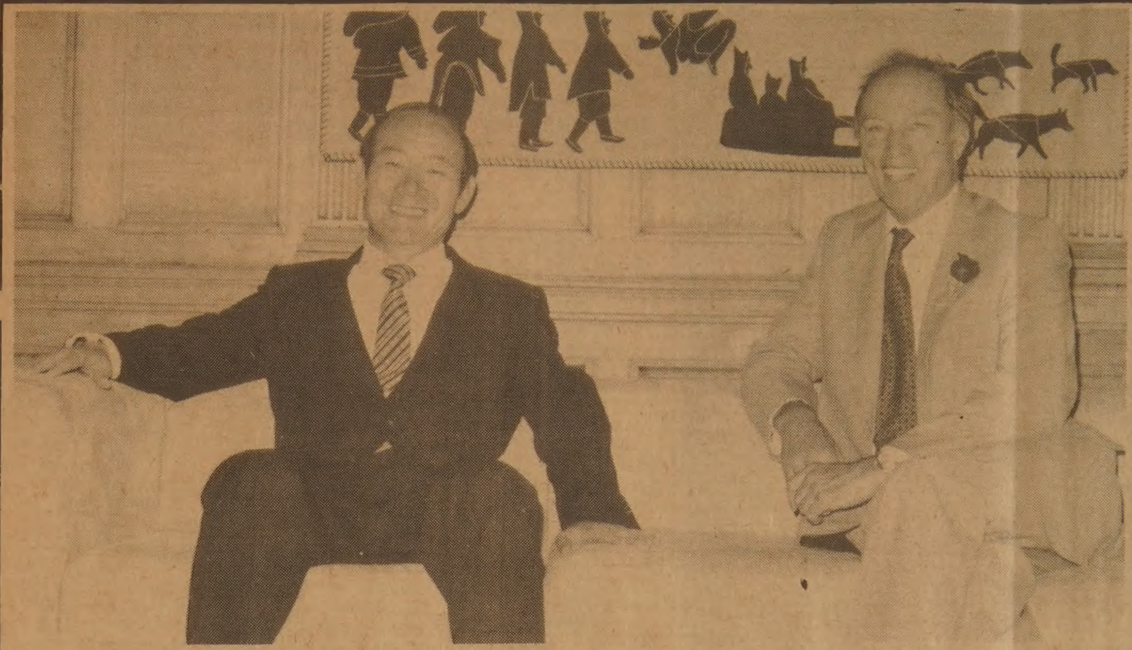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6 1982년 9월 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September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정상회담을 갖는 전두환대통령과 트루도수상. 30일 상오 10시 의사당내수상 집무실에서.

상호관심사「의견교환」

확정적 언급은서로 피해

우호적인 분위기서 정상회담 끝나

(오타와=특별취재반)30일 하오4시 트루도수상실의 한 고위책임자는 이날 상오 열린 전두환·트루도 정상회담및 양국 각료회의에 관한 기자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한국의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 연례 개최 제의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국은 캐나다측의 캔두원자로 2호기 도입 제의에 대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 관리는 캐나다 기자로부터 "독재적인 한국과 가깝게 지낼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민은 캐나다 국민보다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대로 불편없이(comfortable) 산다. 그러면 됐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양국 각료회담의 주역 허브·그레이 상공장관은 한국측이 캔두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럼리 교역장관은 "캐나다측은 캔두외에 곡물, 컴퓨터, 통신기재, 항공기 기재등 고도의 기술제품을 많이 사줄 것등을 요망했으나 구체적 구매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한국산 신발류, 섬유류, 자전거에 대한 특별관세 철폐,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 대한 합작투자, 석탄등 지하에너지자원의 합동개발, 2백마일 수역 축소등을 골자로 한 양국어로협정 체결등을 제안했다.

트루도수상은 이러한 요구에 원칙적으로 찬동하면서 캐나다측의 요구를 제의했다.

트루도수상은 또한 남북통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측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 회담후 전대통령은 캐나다 야당지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트루도수상이 베푸는 점심을 들었다.

이 오찬에서 전대통령은 축배를 제의하면서 "복받은 이나라에 와서 나는 지난 115년간 이룩된 놀라운 업적과 경제개발을 위한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 감탄했다. 이번에 본인이 이곳에 온것은 작년 9월 트루도수상의 방한과 함께 양국민간의 보다 큰 우정과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트루도수상의 건강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및 양국간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전대통령은 31일 상오11시 오타와를 출발, 귀국길에 오름으로서 15일간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방문을 마감했다.

교민 16명등 2백명 참석

—트루도수상 리셉션—

(오타와=특별취재반)전두환대통령 일행을 위한 트루도수상 리셉션이 30일 하오6시 외무성빌딩(레스터·피어슨빌딩) 9층에서 약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측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범석외무, 김동휘상공장관, 함병춘 청와대비서실장, 봉두완국회의원, 장세동경호실장등과 정주영씨등 수행경제인들, 캐나다측에는 트루도수상, 헙·그레이 상공, 에드워드·럼리 교역, 막·맥기건, 외무장관등과 베네토 노먼·텔리콤사장등 실업인들이 참석했다.

교민들로서는 오기송 한인연합회장, 강신봉 동 이사장, 정대위 칼톤대학교수, 송광석 오타와한인회장, 전기덕 토론토 매스터·오토바디 사장(대통령과 군동료), 곽일훈 무역회사장(밴쿠버), 유영린 코리안·저널 사장, 김명규 토론토한국일보사장 부부가 초청됐다.

오타와의 문광순 박사는 이번 전두환대통령 방문중 통역을 맡아 이날 리셉션에서도 시종 트루도수상 옆에서 지냈다.

이날 하루종일 정상회담등 가장 중요한 일정을 넘긴 탓인지 대통령과 영부인은 약간 피로한 기색으로 참석자들과 담소했다.

리셉션에서는 시중드는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많고 분위기는 정중했으나 포도주만 나왔고 안주(음식)는 보잘 것 없었다.

대통령 부부와 트루도수상은 아무 것도 들지 않았으며 약 40분후 자리를 떴다.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가 정책협의회 구성

양국 외상회의서 합의

(오타와30일=연합)이범석 한국외무장관과 막·맥기건 캐나다외무상은 30일 한국·캐나다 정책협의회(The Korea-Canada Policy Consultative Meeting)를 설립, 매년 양국 외상을 대표로 하는 협의회를 서울과 오타와에서 교대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날 하오3시30분 회담을 가진 양국외상은 이 협의회가 양국의 공동 관심사, 양국간의 정책적 문제점등을 다루는 실무자급 회의로 규정했다.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는 이번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중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합의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시각에 예정됐던 전대통령과 조·클락 보수당당수와의 회담은 취소됐다.

미군의 면담요청 거부

북한, 실종미군사건

(서울 31일=연합)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31일 북한측에 대해 최근 비무장지대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조세프·화이트 미군일병이 자의에 의해 북한으로 망명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이트일병과의 직접대면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인 제임스·스톰스해군소장은 이날 유엔군측은 휴전협정의정서에 의거, 이같이 북한측에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화이트일병이 자기 의사를 직접 말할 수 있게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측은 유엔군측의 이와같은 면담요청을 일축하면서, 화이트일병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개스값 16% 인상

연방정부 6~5% 지침 어겨

(오타와)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며 실행하려던 2년내 임금및 물가 인상률 6~5% 동결지침을 스스로가 깨뜨렸다.

30일 연방정부는 천연개스수송업체인 트랜스캐나다 송유관회사에 9월1일부터 16% 인상을 실시 허용함으로써 개스 소비자들은 1천입방피트당 14센트씩 더 부담케 됐다.

이로써 천연개스를 사용하는 토론토 주택소유자들은 년간 $20이상씩 추가 부담케 됐다.

실제 소비자가격의 인상은 11월중 온타리오주 에너지위원회가 소비자 개스회사(Consumer's Gas Co.) 토론토 공급자의 가격인상을 승인한 뒤에 있게 된다.

막·랄롱드 연방 에너지상은 30일 트랜스·캐나다 개스 수송회사가 송유관을 통해 알버타주에서 나오는 개스를 동부 캐나다로 운송하는데 막심한 경비를 지출해왔으므로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6-5% 정책은 하나의 지침으로 강제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당 5명 구속

공항서 상습외화반출

(LA지사)김포공항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외화반출을 묵인해온 김포공항 보안검색용역회사 직원 5명이 27일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27일 홍콩인의 거액외화 및 반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맡고있는 용역회사 한국안전기업(KSC)의 X-레이 검색반 C조조장 김창수씨(37·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공아파트)와 검색조원 임영일(33), 박영만(28), 심영철(25), 장인홍씨(31) 5명을 국제밀수조직과 공모, 상습적으로 외화반출을 묵인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외환관리법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중 김창수씨는 통관책으로 알려진 이종성씨(20)의 처남으로 오래전부터 홍콩인이 미화가 든 가방을 가지고 출국할때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이씨로부터 받고 건당 2만원내지 5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분배해온 수고비에 불만을 품은 이들중 1명의 밀고로 꼬리가 잡혔다.

교과서 수정키로

일본, 압력에 굴복

(뉴욕27일=연합)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본의 한국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 역사교과서를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지는 이날 제1면 외신보도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제2면에서 도쿄특파원발 기사로서 일본이 2차대전중의 인접국가 침략상을 왜곡기록한 데 대한 항의의 물결에 승복, 교과서를 다시 수정키로 했음을 보도했다고 보도했으나, 언제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란 곰 화 장 품 / 대 리 점
ROLEX
가장 믿고·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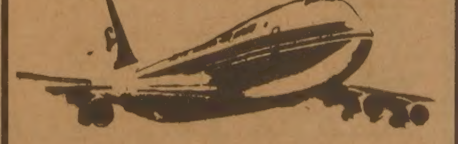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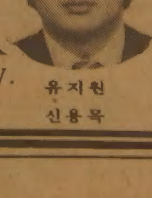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정영수태권도 아카데미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은 길이 멀고, 바른 道를 모르는 사람은 生死가 기나니……」
본관 : 1065 ST. CLAIR AVE. W. TORONTO. 652-0000
지관 : 463 TALBOT ST,. ST. THOMAS, ONT. (519)631-8449 · 633-5931
∽ 약력 ∽
● 8세에 태권도 입문
● 해군 해병태권도 대표선수〈한국최강팀〉
●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선발등, 전국규모 시합다수입상
● 중앙대학교 사범 ● 은광여고 사범
● 해군 해병 대표 선수단 트레이너
● 제1공수 특전여단 사범
● 주한 외국인 대사 자녀들 지도
● 경기도 태권도협회 선정, 1980년도 최우수 지도상 받음
∽ 학력 ∽
* 양정 중·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 연세경영대학원
태권사범 현각 정 영 수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 큰 병 $6.99 ~~$9.50~~ ●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5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 면	.89	~~.99~~
냉 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 신품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 사실때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구매조사단 한국파견
한·카 경제인들 합의

(오타와=특별취재반)한국및 캐나다 경제계 지도자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캐나다산 곡물도입 가능성과 에너지자원 개발및 협력증진을 타진할 특별조사단을 구성, 캐나다에 파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한·카경제인협의회(The Korea-Canada Business Council) 회원들은 이날 비공식회의에서 주로 미국산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이 캐나다산 곡물을 수입해갈 잠재적 가능성및 에너지자원을 포함, 한국의 공업화에 필수적인 자원을 캐나다에서 수입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뒤 이같은 특별조사단 구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은 전대통령을 수행한 약30명의 한국측 경제인들과 50명의 캐나다 경제인들이었다.

한·카경제인연합회 한국측 의장은 구평회 호남정유사장, 캐나다측 의장은 베넷트 노선·텔레콤 사장이다.

양국 경제인들은 또 전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이같은 회담을 통한 국제협력은 태평양지역의 경제번영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인권문제 거론안돼"
G&M지등 항의데모 보도

전대통령의 인권정책에 대한 항의데모가 대통령의 오타와 도착순간부터 맹렬히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통령·트루도수상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31일 글로브·앤드·메일지가 보도했다.

글로브지는 이날 8면 머리기사에서 사진과 함께 한·카정상회담에 관해 보도하고 「정상회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관리들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보이면서 인권문제는 트루도수상이 지난해 서울을 방문했을때 이미 거론됐으며 한국관리들은 캐나다가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전대통령은 4일간 캐나다체류중 여러차례 항의데모대를 만났으며 캐나다의 제2야당인 신민당(NDP) 브로드벤트 당수는 전대통령의 인권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30일밤에 열린 총독주최 만찬회에도 불참했다고 말했다.

글로브지는 또한 국제사면위(Amnesty International)의 조사를 인용, 현 전대통령의 정부는 정적들을 억압하기 위해 투옥, 고문및 부당재판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방문 외국원수중 경호원을 가장 많이 수행한 지도자중의 하나로 전대통령을 지적한 이 신문은 또 정상회담 개최중 국회의사당 층계를 통과하는 기자들에게 통행을 금지시킨 한국 수행원을 신랄히 꼬집었다.

연방경찰과 하원 보안관리들은 한국관리가 기자들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전대통령의 경호를 책임맡은 존·포아리에 RCMP 간부는 전대통령이 필요이상의 경호원을 수행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한편 오타와의 유일한 일간지 「더·시티즌」지는 30일및 31일자에서 전대통령 방문기사를 실리면서 데모광경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트루도리셉션중 35명 항의데모

(오타와=특별취재반)트루도수상 초청리셉션이 열리고 있던 30일밤 외무성 전물밖에서는 약35명의 캐네디안들이 데모를 벌였다.

다니엘·히브 의원(토론토=신민당소속)도 낀 데모대들은 "고문을 중단하라", "인권을 찾고 억압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대통령 일행은 28일 오타와 도착 이후 수차례 데모대원과 부딪쳤다.

쌍용시멘트 합작개발

(서울30일=연합)쌍용시멘트는 캐나다의 데이빗·미내랄즈회사와 50대 50 합작으로 캐나다의 윌로우·크릭 역청탄광산을 개발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윌로우·크릭탄광에 저장된 역청탄은 5천만톤 정도로 추산되며, 개발공사규모는 미화 $2천만이다.

내년초에 시공, 첫1년간 30만톤 84년부터 92년까지 연간 1백만톤을 캐내며, 한국은 전체 채탄량을 수입해 갈 예정이다.

◆전두환대통령 부부가 트루도수상의 안내를 받으며 수상이 베푼 외무성 9층 리셉션장에 들어가고 있다. 트루도 옆은 맥기건 외무장관.

<제5계절>

「굴비」와 「도오꾜요 이야기」

이유소 (토론토대학 대학원생)

「굴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다. 십년도 훨씬 저쪽 일이다. 워낙 라디오방송극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을 영화화한 것으로 김승호, 황정순, 엄앵란등 그때 일류 배우들이 나왔다. 흥행에 크게 성공했을 뿐더러 평객들 한테서도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모처럼 서울서 성공해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들 딸들은 부모를 냉대할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구박마저 한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오직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작은 며느리 뿐이다.

살붙이로부터 받은 서러움을 작은 며느리의 친절로 달래면서 노부부는 시골로 돌아간다.

「도오꾜오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명감독 오즈야·스지로오가 1953년에 만든 것으로, 전후 일본영화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으례 손꼽히는 작품이다.

혼슈우 남단 오노미찌에 사는 노부부가 아들 딸들을 보러 도오꾜오로 온다. 그러나 아들 딸들은 바쁜 것을 핑계로 부모를 피하고 차갑게 대한다.

오로지 전쟁에 나가 실종이 된 남편을 기다리며 사는 작은 며느리만이 이들을 지성껏 대접한다.

쓸쓸한 가슴을 안고 돌아온 후 얼마가 안되어 아내가 심장마비로 급사한다. 아들 딸들은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기 바쁘고, 끝까지 남아 홀로된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것도 역시 작은 며느리이다.

「굴비」와 「도오꾜오이야기」는 물론 완전히 같은 영화는 아니다. 자세히 쓸 틈이 없어 그렇지, 이야기 전개에 다른 구석이 많다. 그리고 「도오꾜오이야기」가 물이 흐르듯 잔잔하면서도 농도짙게 비극성을 고조시켜 나가, 보는 이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감동을 남기는데 비해 「굴비」는 때로 너무 천박해서 이맛살이 찌프러질 정도로 와자지껄한 코메디로 시종한 점도 다르다면 다르다.

굳이 이름은 밝히고프지 않으나, 「굴비」의 작자는 50년대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오꾜오이야기」를 보았을지도 모르고, 해방후에 일본영화 수입이 금지된 덕택에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믿고서 내용을 표절해서 「굴비」를 썼으리란 가설조차 가능하다. 사실이라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보다 해방후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같아 입맛이 써진다.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한창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일만큼은 일본사람들이 어디로 보나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또 의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자격마저 없다. 그러나 핏대를 올리기에 앞서 우리는 얼마나 나은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끝마다 일본문화란 모두 옛날에 우리한테서 배워간거라고 내세우면서도 일본을 모방하고 표절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해방후의 우리가 아닌가. 옛날에 우리한테서 배워간 거니 결국 우리거란 논리라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말끝마다 왜놈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는지도 모른다.

표절작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쳤던 우리가 바보라면 바보였고, 우물안 개구리라면 우물안 개구리였다. 「굴비」가 혹시 국제영화제 같은 데라도 출품이 되었었다면 하고 생각하니 등어리에 식은 땀마저 흐른다.

우리가 이렇듯 못났으니까 그네들한테는 그렇게 당한다고 해도 솔직이 변명을 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단체상 연합교회
「코리언저널」주최 테니스대회

동업 「코리언 저널」사주최 제8회 테니스대회가 지난21일, 70여명 선수 참가로 에글링톤 Flat공원 정구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참가인원이 넘쳐 6개의 테니스코트에서 밤11시까지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체우승=연합교회

▲개인경기

(1)30세이상 남자단식 우승: 정창조, 준우승: 김종일, 3등:이호천

(2)18세~30세 남자단식 우승: 강주성, 준우승: 레이놀드·김, 3등: 김규복

(3)18세미만 남자단식 우승: 황윤하, 준우승: 서승원, 3등: 밥·송, 유현진

(4)11세미만 남자단식 우승: 코이·윤, 준우승: 해롤드·김, 3등:유성원

(5)18세이상 여자단식 우승: 조가윤, 준우승: 최애란, 3등: 다이안·신

(6)18세이상 여자단식 우승: 이경진, 준우승: 엄미애, 3등: 전명희

(7)18세이상 남자복식 우승: 강주성·레이놀드·김 준우승: 김가별, 김규복 3등: 강주영, 김현철

(8)18세미만 남자복식 우승: 황윤하, 밥·송 준우승: 이준, 박재홍 3등: 이훈, 유현진

(9)여자복식 우승: 조기윤, 이경진 준우승: 전명희, 다이안·신 3등: 엄미애, 웬디·조

컴퓨터 협회 정기 세미나

제2회 캐나다 한인콤퓨터협회(COSKA) 정기세미나(회장 이태영)가 3일(금) 하오7시 비포드·파·하이스쿨(777 Bloor St. W)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이튼백화점에서 일하는 김동규씨, 강연 제목은 Credit Management System.

COSKA는 매월 첫 금요일 정기세미나를 갖으며, 세미나는 일반에 무료 공개된다.

연락처 968-7112

천주교·한인장로교 우승
어린이및 소년축구 폐막

토론토천주교팀과 한인장로교회팀이 어린이및 소년축구대회에서 각각 우승했다.

21일 끝난 민중신문사 주최 대회에서 3연승을 노린 PKA팀은 한인장로교와 연합교팀에 연패, 수상권에서 아깝게 탈락했고, 어린이부 3·4위전 제일장로 대 한인장로 소년부 3·4위전 연합교회 대 웨스턴팀 경기는 불꽃는 대전끝에 무승부로 끝나 골킥으로 승부를 가렸다.

▲어린이부
우승 천주교B팀
2등 런던장로교팀
3등 제일장로교팀

▲소년부
우승 한인장로교팀

여성자원 활용위해 전문기관설립 추진

(서울28일=연합)민정당은 여성의 능력을 국가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산하에 「한국여성자원개발연구소」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민정당은 또한 국무총리직속으로 「한국 여성 지위개선위원회」를 두어 여성문제 연구 조사를 담당케 할 것이라고 28일 당소식통들이 밝혔다.

여성자원 개발 연구소는 김현자의원등 여성의원들이 구상한 것으로 현재 보사부산하에 있는 전국 여성 복지연구소와 전국여성직업훈련센터를 합병시킬 것도 계획하고 있다.

두 여성기구 설립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28일 있은 데모대원 모습. 얼굴을 봉투로 가렸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이자율 안내려
이튼백화점은 28.8% 고수

시중은행의 대부이자율이 18.5%~19%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카드회사들의 이자율은 여전히 24%~28%에 머무르고 있다.

이자율이 떨어져도 매스터·카드나 비자등 크레딧·카드 회사는 경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보는수도 있는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뱅크·오브·커머스 대변인 크리스토퍼·도날드씨는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은 때는 매달 잔금을 갚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물리는 이튼백화점의 바바라·딕윅스대변인은 28일 "이튼백화점이 28.8%인 현재의 이자율을 낮출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핀랜드 언어학자에 모란훈장 수여키로

(서울30일=연합)한국정부는 한국어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핀랜드 언어학자 고 구스타프·J·람스테트(1873~1950)씨에 모란훈장을 수여한다고 30일 문공부가 밝혔다.

유명한 알타이어연구학자인 람스테트 교수는 한국어 비교연구외에 한국문물을 유럽에 소개시키는데 공헌이 컸다.

1933년 헬싱키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 람스테트교수는 한국어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고, 그의 한국어 품사론에 관한 3천개의 카드, 많은 한국어 도서및 연구자료가 헬싱키대학 도서관에 기증했었다.

모란훈장은 31일 핀랜드의 한국대사관에서 고인의 딸인 세드릭·와크루스(85)씨가 대신 받는다.

교회학교 교사수련회
4일 한인장로교회

제1회 토론토 지구 교회학교 교사 연합수련회가 오는 9월4일(토) 아침 8시30분부터 하오 6시까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교사연합회의 유년부·청소년부가 합친 이래 처음 열리는 이번 연합수련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와 신앙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용출, 박희민목사의 강의가 있게 된다.

영락교회 정경진 전도사의 싱·어롱, 개회예배(설교 김경진 목사)에 이어 점심후 부별강습및 친교, 교육영화감상및 헌신예배로 엮어질 교사수련회의 참가비는 $5씩.

부별강습에서 이날 유초등부는 임명희 전도사 지도로 노래및 율동, 김상호 목사의 「아동교육의 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강연을 가지며 청소년부는 홍신웅 목사의 강연 "토론토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교육"을 듣는다.

베델교회 여선교회는 장국밥을 점심으로 제공하며 친교프로는 고석봉씨가 담당한다.

교사연합수련회 문의및 연락처는 이용술장로 630-4902(R), 633-9420(ext. 486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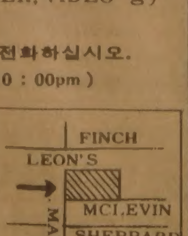
교민동정

◆고종옥(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8월 한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토론토로 귀임했다. 휴가동안 밀렸던 소설 구상도 하고, 묵상회 지도겸 필라델피아, LA등지의 여행도 가졌다.

고신부 휴가중은 크리브랜드 한인천주교회의 조병기 신부가 토론토성당을 맡아 성무집행을 했다.

◆이광욱(충현교회 장로)=2남인 막내아들 호빈군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미치고 귀가, 오는 9월5일(일) 오후4시 충현교회에서 축하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친목회 및 총회
본 동창회에서는 회원친목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9월18일(토)
●장 소 : 20 ALBION AVE, SCARB. 698-3778(MRS. 윤)
※ 토론토지구 동창회원 주소록을 위해서 이사하신 분들, 새로 오신분들은 동창회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MRS. LEE 536-4250
MRS. 윤 698-3778
토론토지구 이화여자 대학교 동창회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과거의 잘못 깊이이해"
「일본교과서왜곡」사과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야마모도 목사와 부인 나나끄여사.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 한국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이때, 미국에 있는 일본인 목사가 이를 사죄하러 한국으로 나가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야마모도 고이찌 목사―현재 나사렛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미국 일본인 목사회 회장으로 오는 9월2일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난다.

"일본인은 과거에 범한 죄를 회개하여야 망하지 않읍니다. 또 한일친선은 그리스도의 형제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마모도목사는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를 찾아 다시 속죄를 하고, 한국 교계인사들에게도 이 뜻을 전하게 된다.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이 목사는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했고, 1943년에는 신사참배 반대, 연합군의 스파이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 했다. 이때 가석방되어 일본군으로 나가 중위로 패전을 맞았고, 그후 전도자로 새출발.

이번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 야마모도목사는 일본측에 책임을 돌리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한편 야마모도목사는 한국의 출발에 앞서 8월29일 주일 상오11시 나성 임마누엘교회(2551 W. Olympic Blvd La)에서 사죄의 뜻이 담긴 설교를 했다. 이 교회에 오게된 이유는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른 김욱목사와의 같은 처지를 이해한 때문이라고, 이날 야마모도목사의 부인 나나끄여사의 특별독창 순서도 있었다.

잉그리드·버그만 사망
8년간 투병끝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카사블랑카"등의 영화로 낯익은 여배우 잉그리드·버그만이 8년간 암과의 고투끝에 29일 영국 런던에서 67세 생일날 숨졌다.

그녀의 임종은 세번째 남편인 스웨덴 연극제작가 라즈·슈미트씨가 지켜보았다.

81년 골다·메이어수상전기 TV영화 "A Woman Called Golda"를 끝으로 연기생활을 마친 독일태생의 버그만은 빼어난 외모, 뛰어난 연기력, 직업의식으로 2개의 오스카상 여우주연상, 1개의 조연상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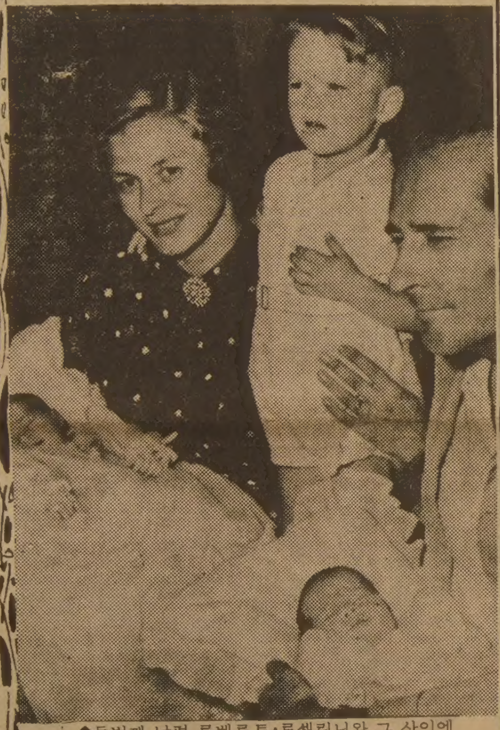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청순한 19세의 처녀 〈마리아〉역을 해낸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가스등』, 『성마리아의 종』, 『간주곡』, 『카사블랑카』, 『아나스타시아』등이다.

버그만은 첫번째 남편 피터·린스트롬박사와의 결혼생활중 1949년 이태리의 사실주의 감독 로베르토·로셀리니의 아기를 가졌음이 알려져 완벽하고 정숙한 영화에서의 이미지를 간직한 팬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성 마리아 종」에서의 버그만.

로셀리니와의 결혼생활은 2년만에 깨졌으나 버그만은 "결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근사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극중 인물과 배우의 생은 구별돼야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었다.

유가족으로는 세자녀가 있다.



◆두번째 남편 로베르토·로셀리니와 그 사이에 난 쌍둥이딸과 첫번째 남편의 아들과 함께.

金聖鍾작

어떤 殺人 ⑥

2천만원의 魔力에 착잡해진 오빠는…

누이는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언성을 높여

「뭐라고? 입금시켰단 말이야?」

하고 물었다.

「아니예요. 하마터면 그럴뻔했어요. 입금시키려다가 마음을 돌려 그만 두었어요.」

「난 또 입금시킨줄 알았지. 하여간 다행이다. 자, 내일 보자.」

「오빠.」

전화를 끊으려하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불렀다.

「왜 그래?」

「잘 해낼 자신 있으세요?」

「글쎄, 자신이 있고 없고 간에 하여간 부딪쳐봐야 할 거 아니야. 부딪쳐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할건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 그거야 만나봐야 알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빠도 무서운 생각하시네요.」

「너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때 그런 기분을 느꼈었지. 당연한 기분이지.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만 끊자.」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누이와 헤어진 뒤부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었다. 그것도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었다. 「그놈을 처리해주시면 오빠한테 2천만원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누이가 한 말이었다. 누이가 그말을 했을 때 그는 내심 적잖게 당황하고 놀랐었다. 누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놈한테 주느니 오빠한테 드리겠어요.」 그는 떫은 감을 먹은 기분이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마치 2천만원에 누이한테 고용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런 기분은 점점 사라지고,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슬금슬금 유혹의 손길을 뻗어오고 있었다. 2천만원―그것은 분명히 거액이었다. 가난한 월급쟁이가 그만한 돈을 만져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에 쪼들리다보면 저축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눈 앞에있는 것이다. 누이의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받아서는 안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유혹의 손길은 너무도 억세게 그를 죄어오고 있었다. 「잘만 하면 2천만원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는 자못 흥분했다. 흥분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릴 지경이었다. 「어떻게하면 2천만원을 손에 넣을 수가 있을까.」 그는 노골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돈이 필요했다. 이만저만 돈이 필요한게 아니었다. 그동안 누이한테 염치불구 하고 돈을 빌어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빌어왔던 것이다. 마지막에 거절당하기 까지 했지만.

「그놈을 처리해주시면 오빠한테 2천만원을 드리겠어요.」

이제 그것은 누이의 어떤 말보다도 뚜렷이 그의 머리 속에 남아 벌레처럼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2천만원을 손에 쥘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갑자기 화가 나서 자신을 저주했다. 「돈에 눈이 멀어 어쩔줄 모르는 내놈이야 말로 한심한 놈이다. 예라이, 한심한 놈 같으니.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먹으려고 하는 거냐. 오죽하면 누이가 그 돈을 주겠다고 했겠느냐. 인정머리도 없는 놈 같으니.」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단풍을 찍읍시다"

제7회 사진촬영대회 안내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팍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 2 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o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 × 10 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한

◆79년 제5회 최고상 황보운작품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 사진협회 임원·한국일보 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 카메라 1대
기타 6등까지 시상함.

◆선착순 1백명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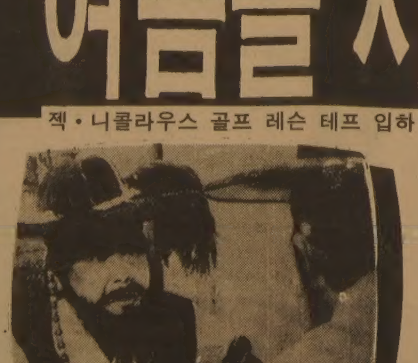
문의및 접수처 :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킴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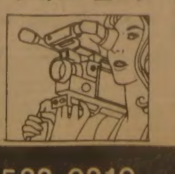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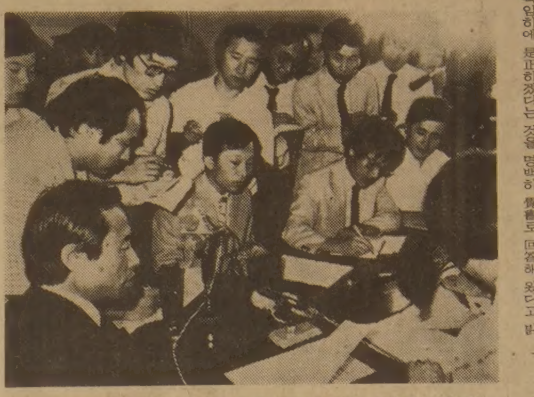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日覺書 우리輿論 反映간주"

是正 시기등은 未洽하지만 조속實現에 外交노력 계속

정부대변인 李振羲문공장관은 27일 日本역사교과서 是正에 관한 談話文을 발표, 日本정부가 26일상오 교과서의 문제된部分을 日本정부 책임하에 是正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覺書로 回答해 왔다고 밝히고 『日本정부의 是正公約은 그동안 우리정부와 국민여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본다』고 말했다.

李 政府대변인 談話발표



◇李振羲 문공장관이 27일상오 일본역사교과서 歪曲시정에 관한 정부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

李장관의 談話文은 26·27 양일간 金相浹총리서리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日本정부의 覺書내용을 신중히 검토한끝에 발표된것으로 우리정부가 日本정부의 是正약속을 肯定的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것으로 평가된다.

李장관은 그러나 담화문에서 『다만 그 是正시기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이 檢定할 교과서에는 우리의 입장이 즉시 반영될것으로 보나 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의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85년에나 실현된다는것이 우리의 기대에 매우 未洽한점』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문은또 『그동안의 경과조치로써 日本정부가 실제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국민 여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을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고있음에 注目하면서 日本정부의是正약속이 빠른시일내에 實效를 거둘수있도록 우리의 外交的노력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담화문은 『韓·日 양국간에 互惠평등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善隣友好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과거역사에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뜻에서 日本이 역사에대한 잘못된 인식의 是正을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번문제가 먼장래의 양국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우리국민과 정부는 이문제를계기로 민족의 존엄성과 民族史의 正統性을 드높이고 이를 뒷받침할수있는 국가力量을 더한층 培養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국민과 정부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다짐해야하겠다』고 밝혔다.

談話文(全文)

우리政府의 8월3일자 備忘錄에 對하여、日本정부는 8月26日 상오 일본교과서의 문제된 部分을 일본정부의 책임하에 是正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覺書로 回答해왔읍니다。이 覺書는 일본정부대변인인 官房長官名義의 같은날 하오 談話文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이와같은 일본정부의 是正公約은 그 동안의 우리정부의 거듭된 시정 촉구와 국민여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정시기에 있어서、금후 새로이 檢定할 교과서에는 우리의 입장이 즉시 반영될 것으로 보나、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의 문제부분에 대하여는 85年度에나 실현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에 매우 미흡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과조치로써 일본정부가 실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여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고있음에 注目하면서、일본 정부의 시정약속이 빠른 時日內에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우리의 外交的 努力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韓·日兩國間에 互惠平等과 상호존중에 입각한 善隣友好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하여는 양국관계의 과거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믿으며、이러한 뜻에서 일본이 역사에 對한 잘못된 인식의 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이번 문제가 먼장래의 양국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국민과 정부는 이번문제를 계기로 민족의 존엄성과 민족사의 正統性을 드높이고、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국가力量을 더한층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국민과 정부의 단합된 意志와 노력을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日의 잘못是認당연 당장 고치게措置를
各黨서 논평

民正·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는 역사교과서 歪曲시정에대해 우리정부에 알려온 日本정부의 공식견해에 대해 각각 다음과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民正黨李鍾律부대변인=日本정부가 한국을 침략한과거를 반성하고 日本역사교과서내용이 잘못된점을 시인하여 이를 늦게나마 시정키로 결정한것은 당연한 일이라본다. 그러나 그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日本국내사정을 들어 이미 검정이끝난 교과서에대하여는 즉각 시정치못하고 다른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심히 불만스러운 일이다. 日本정부는 이번 歪曲으로 빚어진 한국의 격앙된 국민감정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거듭촉구하며 우리는 이를계속 주시할것이다.

▲民韓黨金珍培대변인=日本정부의 견해는 言語道斷이며 참을수없는 민족적분노를 새롭게 하고있다. 85년부터 교과서를 수정한다는것은 앞으로도 두고보겠다는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측의 어떠한 구실과 변명도왜곡된 사실을 은폐시킬수없으며 韓·日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되지않을 것이다. 정부는 日本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결코용납해서는 안되며 역사책이사실 그대로 쓰여지도록 즉각외교적인 강경조치를 취해야한다.

日시정책 임기응변 韓·中共불만 못막아
日紙들 논평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등 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이 26일밝힌 교과서歪曲문제에대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일본정부의 이같은견해는 한국과 중공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즉시是正』요구와는거리가있는 불충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교과서歪曲을 둘러싼 외교문제가 어떻게 최종해결될지는 확실하지않다고 27일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正誤訂正」을 서둘도록 촉구한 교과서집필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 표명에 중공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있으며 이번조치는 한국등 아시아국가의 불만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여론이 일본정부의 이번조치에서 한국측의 요구사항인 즉각是正이 거부된데대해 강한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하겠다면서 심의회의 심의를구하겠다고 한것은 이번대책이 임기응변에 불과한것이고 스스로의 모순점을 잘 드러낸것』이라 비판했다。 또 마이니찌(毎日)신문도 이번 조치가 단시일내에 한국과 중공을 진정시키기는 곤란한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번 대책은 스즈끼수상이 취한 방식의 한계성을 드러낸것』이라고 지적했다。

"法官탈락 장애자 救濟"
兪대법원장 적당한 時期에 추가任用

兪泰興대법원장은 27일 지체부자유를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된 사법연수원수료생 4명을 적당한 시기에 구제할것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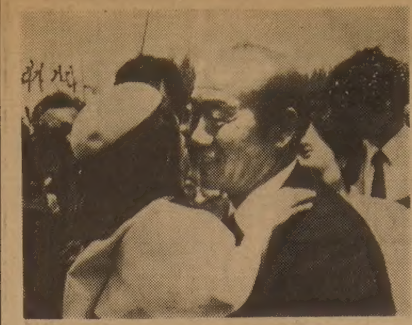
兪대법원장은 이날 신체장애자법관탈락파동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당초 대법원의뜻과는달리 탈락된 당사자는 물론 조야법조계·여야정계등 각계의 사회반응이 심각해 이번탈락조치가 결코 대법원이 인권평등의식도 없이 행한 처사가 아닌점을 밝히는한편 이를 재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구제방침을 결정하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兪원장은 『지금으로서는구체적시기나 4명전부를 구제할는지의 여부등은 말할수없다』면서 『9월1일자 법원인사후 4명의법관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도 또사표를 낼 법관이 있을것이나 1명이사표를 냈다고 곧바로1명을충원하는 식은곤란하고법 관수급계획을 다시세워 다음인사가 있을때탈락된4명을 재고대상으로 삼겠다』고말했다。

그는『일반여론은 대법원이 지체부자유에대해 편견을 가지고 탈락시킨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라고밝히고『법관 수급계획은 65명인데다 연수원을수료하면 판사·검사·변호사가 다 될수있으므로 같은값이면 법관보다는 변호사를택하는것이 인권옹호나 민권신장에 더이바지할수 있다고 생각됐기때문이며 법관만이 사회활동에 유일한 길이어서 법관탈락이 영영 앞길을 막는 길이 었다면 결코 탈락시키지 않았을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번 법관임용에 앞서 수급계획이 65명으로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관계등을 고려、정상인을 우선으로 했으며 이들이 지체부자유 때문에 탈락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변호사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법관은재판사무이외에도 검증과 지방출장、해외연수·민방위·CPX등 공적 조직활동이 많기때문에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변호사라는 성스러운 직역이 없어도 전부 임용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全대통령、라스팔마스寄着
遠洋漁船기지 시찰



◇全斗煥 대통령이 26일하오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태극기를들고 환영하는 한僑民어린이를 안아주고있다。【라스팔마스(스페인) 26日聯=합】

【라스팔마스=尹國炳특파원】 대통령내외는 캐나다방문에 앞서 26일하오 기착지인 스페인領 라스팔마스에 도착했다。

全대통령은 도착 다음날인 27일하오 숙소에서 이곳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遠洋漁業현황을 보고받은다음 遠洋漁船기지를 시찰하고 조업중인 어부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내외는 26일 공항에서 카나리아空軍관구사령관 푸이그세르·베르·로마장군을 비롯, 리에트·팔로마 라스팔마스州知事, 해군관구사령관, 그랑카나리아島嶼협회의장내외, 라스팔마스市長내외, 공항관리소장등의 영접을 받았다。

全대통령내외는 州廳여직원 2명으로부터 꽃다발을받은후 출영인사들과 인사를나누고 5백여僑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숙소로 향했다。

이에앞서 9박10일간의 아프리카 4개국순방을 모두끝낸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마지막 방문국인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를 떠났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대통령궁에서 디우프대통령과 세네갈 방문결과를 결산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全대통령은 공동성명서명을 끝내고 다카르·요프공항에 도착, 디우프대통령을 비롯한 세네갈측 고위인사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다카르를 떠났다。

全대통령은 이날 세네갈출발에 즈음한 성명에서 『韓國과 세네갈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같은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우정있는 동반자』라고 밝히고 『본인은 이번 세네갈방문을 통해 양국민간의 긴밀한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단결、그리고 이지역의 平和와 번영을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에 더욱 굳은 다짐을 할수있었던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加정상회담 주요議題
「太平洋회담 구상」

【오타와27日=聯合】全斗煥대통령이 최근 제안한태평양정상회담구상이 오는30일로 예정된 韓·캐나다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같다고 캐나다정부고위관리가 25일 밝혔다。

社会漫評

"모두「歪曲敎科書」구나…"

PLO、對이 抗爭강화
"隊員들 시리아集結" 명령
게릴라式 攻勢등 3개行動계획 수립

【베이루트26日=聯合】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지도자들은 이스라엘軍의 포위속에 西베이루트의 폐허로부터 그들의 대원들이 철수하고있는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군사적항쟁강화계획을 마련하기시작했다。

PLO지도자들은 10주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려 그들의 본거지에서 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패배를 단식하기는 커녕오히려 정치적 승리를 주장하면서3가지 주요목적을열거해두고 장래행동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정통한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3가지 주요목적이①PLO대원들이 시리아에서 결집、대오를 정비하는 일과②게릴라式 공세강화③아랍제국으로부터의 지원강화등이라고 지적하고 PLO대원들이 8개아랍국들에 분산되는것은 잠정적인것으로 앞으로 수주내에 反이스라엘항쟁을 펴기위한 태세를갖추고 집합하라는 명령이 많은 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한 PLO대원들의 새로운 결집장소는 對이스라엘군사대결에서 최후의 전선국가로 남아있는 시리아이다。

이미 시리아에는 아랍국가로서는 비교적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있는데 약2천명의 상주대원들이 명목상의 PLO사령부지휘를 받고있을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의 휘하에 있는 몇개의 사무실들이 자리잡고 있다。

地平線

『맛기 싫은 매는 맞아도 먹기싫은 음식은 못먹는다』 우리 속담은 미각의 고집을 표현했다。음식을 먹을때 입맛이냐 영양이냐를 따지면 우선 입맛이 앞선수밖에 없다。식생활개선 캠페인은 「口味의 변화」를 유도하는것이 지름길일것 같다。 아무리 권장해도 외면당하던 현미와 보리쌀의 소비량이 차츰 늘어난다고한다。 기름기가 잘잘도는 흰쌀밥을 줄이고 건강식에의 관심이 높아가는 추세탓이다。 자연식에 바탕을 둔 건강식품으로 꼽히는것은 많다。율무쌀도 그중 하나다。

▼東醫寶鑑은 율무를 오래많이 먹으면 식욕을 증진시키고 효과가 크다고 적어놓았다。 반대로 實學者들은 기운을 손상한다고 오히려 禁忌食으로 여겼다。閨閤叢書는 임산부가 많이 먹으면 유산의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영양가 풍부하다는 현미에 대한 의견도 反論이 없지 않다。 어느요리전문가는 현미엔 지방질이 많아 소화흡수율이 흰쌀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白米食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건강식이란 먼저 식생활의 조화에 달려 있는것 같다。

▼고려시대식생활엔 陰陽五行說이 깔려있다。 대체로 채소·과일같은 식물성음식은 陽으로, 고기·어패류같은 동물성은 陰으로 생각하여 그 조화를 찾았다。요즘 고기를 먹을때 채소를 많이 들라는 권고가 자주 들린다。생활의 지혜는 벌써 먼 옛날부터 있어 온것이다。그러고 보면 우리 전통음식은 맛과 영양의 조화를 고루 갖춘 우수한 종류가 흔하다。 春困을 쫓는 오곡밥、단백질이 가득한 설렁탕、노화를 막는다는 약밥、그 밖에 영양의 寶庫같은 신선로·구절판을 빼놓을수없겠다。

▼우리 음식에서 김치와 장은 밀반찬으로 여긴다。 어떤 진수성찬도 이것이 곁들이지 않으면 입안이 허전하다。 인스턴트식품시대를 맞아 김치와 장을 담글줄 모르는 주부가 있다는 조사결과(KBS)는 매우 섭섭한 느낌을 준다。 도시여성의 62%가 장을, 25%는 김치를 손수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는 더하다。 學歷은 높아 지면서 주부수업은 후퇴하고 있는것일까…。

▼장맛을 보면 그집안을 짐작할수 있다고 한다。 주부의 손길은 가족의 입맛을 바꾼다。 건강식을 제공하는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솜씨에 달렸다。 맛갈스런 김치와 장이 오르는 식탁엔 주부의 애정이 깃든다。 식생활개선도 그손에서 시작된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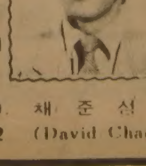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식
(R) (416)633 7892 (David Cha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MLS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 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 SQF 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 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 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 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 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li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6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un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 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M3B 1Z3
TEL (416)449－8644～5(B) · 286－1548(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輿論의성과 "誠意" 인정

日선「발등의 불」일단 鎭火 한셈

교과서歪曲파동 兩國의 視角

서울側

日의 是正약속 우선首肯
國力신장…監視 계속해야

일본의역사교과서 歪曲문제로 야기된 韓日간의 외교적인 紛糾는 熱戰에서 冷戰으로 양상이 바뀌게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의 책임아래교과서왜곡부분시정을꼭 실현하겠다」는 26일의 일본정부약속을 일단받아들이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근2개월동안 국민들의 분노를샀던 歪曲파동은 일단 수습의 轉機를 맞게된것이다.

이담화문은 『일본정부의是正公約은 그동안 우리정부의 거듭된 시정촉구와 국민여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검정이끝난 교과서의 문제부분을 85년에 시정한다는것은 우리의 기대에 매우 미흡하기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實效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앞으로의 外交的노력을 다짐하는 단서를 잊지않았다.

외무부는 26일상오 崔慶祿駐日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의 覺書와 정부견해를 사전입수한 즉시 관계자들이 對應策을 마련했으며 이 대응책은 26일 하오와 27일 상오의 관계각료대책회의에서 부분적으로 修正된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26일밤 民正黨측과 1차협의를 가진데이어 27일에는 民正·民韓·국민당및 議政同友會등 각 정당간부들과도 접촉,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들었는데 정당간부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수밖에 없다』는 뜻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일본의 是正조치가 아닌是正약속을일단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세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韓日간의 마찰이 바람직하지못하다는 판단에 일본정부가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정부에외교적인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것 같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일본이「정부책임하에 是正하겠다」고 분명히 못박은것은「시정에 노력하겠다」는 종전의 애매한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최선의 약속이라고 볼수있다』면서『또 성명발표는 세계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에게는 覺書로서 확약을 했기때문에 政體가 바뀌기전에는 외교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일본의 약속」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이같은 「일본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해할수 있으나 우리국민들이 對日不信感에서 우러나오는 여론의 기세가 어떻게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정당관계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했다면 즉각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일본국내사정을 이유로 시정시기를 늦추는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즉 일본이 그들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3년周期 이기때문에 다음 검정시기를 1년 앞당겨 84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85년부터 사용하겠다는것은 일본의 자(尺)를 외국에 적용하겠다는 厚顔無恥한 태도가 아니냐는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談話文 속에서『85년에 실현된다는것은 미흡하다』고못박고 國內用으로『일본정부의 시정약속이 빠른 시일내에 實效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것은 국민여론을 감안하고 對日외교에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으려는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歪曲시정에대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가示唆한는대로 일본이 85년이전에 是正된교과서를 사용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일본이 약속대로 2년후에 왜곡부분을 우리가 바라는대로 바로잡도록 감시를 계을리하지말아야할것이다.

일본은 교과용 도서檢定조사심의회의 검정기준을 고쳐 시정할뜻을 밝혔는데 그 기준이 국제적으로 객관성이 있을것인지가 의문시되며 또 시정작업은 지금까지 이문제에서 強硬자세를 늦추지 않았던 文部省의 소관이란점에서 일말의 불안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일본국내에서「즉각시정해야한다」는 외무성의 주장보다는「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부성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있다.

일본은 현재 교과서문제에 관해 四面楚歌에 빠져있기때문에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생각에서 是正을약속했다면 세계여론이 진정된후에 약속을 이행치 않을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變心을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당조제시한「공동연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거나 韓日의원연맹내에 「왜곡시정위원회」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일본이 약속을 이행토록하는 제도적인장치를 마련할필요가있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一步후퇴案을 수락한이상 일본측의 시정이 한국측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가는것은 「일본의약속이행」을 독촉·감시하는뜻에서도 당연하다 하겠다.

교과서문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정부는 이제 교과서파동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對日분노와 不信感을 對內的으로 어떻게 진정, 해소시키느냐는 과제를 안게됐다. 국민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일본에 대한 不信은 말할것도 없고 처음 왜곡과정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작업을 지적하면서 문교부장관에게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문교부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왜곡부분을 조사하는 등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

克日을 위한 國力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정부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주장하는 정부담화문④항은『정부가 일본의 제안을 만족해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번 파동을 계기로 국민의 에너지를 집약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사실 建國이래 韓日간에 현안문제가 생길때마다 국민들의 反日감정은 폭발했고 그것이 自強을위한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욕구불만의 표현으로 끝난것은 정부의 近視眼的인태도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다짐한 「歪曲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보다 강력한 외교적노력을 펴는한편 이번파동을계기로 봄붙은 일본에대한 국민의 自強 自立 自省의 노력을 昇華, 國力신장으로 구현할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어떻게보면 이번파동은 對日관계를 새로 정리하는계기가된만큼 日本의 植民地시대의 妄想과 對韓蔑視세가두번다시 再現되지않는 다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할것이다.

【李在武기자】

◇오가와(小川平二) 日문부상(左)이 26일 교과서 왜곡에 관한 日정부의 견해가 발표된후 기자회견에서 스즈끼(鈴木) 문부성 초중등교육국장과 협의하고있다. 【東京26일 UPI電送=聯合】

동경側

우리의 주장 正當性 인정
막판에 文教族 설득 성공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 검정교과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최종단안은 한국과 중공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하겠다』는것을 명확히한점을 들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성의표시로 간주된다.

26일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의 담·형식으로 발표된 일본의 수습방안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중공이 주장한 歪曲교과서시정요구가 정당한것이었음을 일본정부가 스스로 인정한셈이다.

당초 일본문부성은 정부책임아래 교과서시정을 수습방안에 명기하는것을 강력히반대했었다. 그이유는 교과서 검정제도가 형식상으로 自律검정이므로 정부가 간여하여 歪曲부분을 시정한다면 교과서검정제도가 그르쳐질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공등의 시정요구의사가 강력할뿐아니라 불분명한 수습방안으로는 교과서문제를 조기타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是正을 名記하자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교과서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된지 1개월이 넘어서야 수습방안을 마련하게된것은 그만큼 교과서문제가 내정문제와 깊이 관련돼 상황이 복잡해 졌기 때문이다.

스즈끼수상은 오는 11월에 있을 자민당총선거를 앞두고 후꾸다(福田)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사서는 안될 형편에 놓여있었다.

문부성과 자민당의 문교위소속의원들은 혁신계의 일본교육노조(日敎組) 편향교육으로 부터 교과서기술을 지키기위해 검정제도를 허물어뜨려 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즉각수정」요구에 부응하기위해 3년주기의 검정을 2년앞당겨 재수정할것을 주장했으나 문부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1년을앞당겨 85년에 사용할 교과서부터 歪曲부분을 수정키로결정한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즈끼수상은①교과서 검정제도는 견지하고②아시아 외교의 基軸인 한국과 중공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유지해야한다는두가지 명제를 다함께 충족시킬수있는 해답을 구했다.

그러면 문부성은 과연 왜곡교과서를 언제 어떻게 시정할것인가?

문부성은 9월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소집하여 한국과 중공등이주장하는 歪曲대목에 대한 검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요청, 10월까지심의회의답신을 얻어낼 예정이다.

심의회의 검정기준 변경에 대한 답신을 얻으면 문부성은 이검정기준에 따라 82년에 검정신청이 들어온 교과서에 대해 83년까지 검정을 끝내고 84년에 사용될 교과서부터 歪曲을 강요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핵심은 문제가 되었던 83년부터 사용될, 이미 검정이 끝난교과서에 대해서는 3년주기의 검정제도를 1년앞당겨실시, 85년부터 歪曲부분을 수정토록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미 검정이 끝난 歪曲된 교과서는 결국 83년과 84년 2년에 걸쳐 사용케 되었으며 그결과조치로서 심의회의 답신내용과 문부상의 성명내용을 문부성 廣報지에 게재하고실제학습장에서수정교육하도록지시할방침이다.

오가와(小川) 문부상은 27일 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한 수정은 85년에 사용될 교과서부터 고치게될것이나 실제로 배우는 학교교육에서는 한국과 중공이 지적한 歪曲대목을 수정교육하도록 행정지도할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무성은 이번 교과서문제로 아시아각국과의 우호관계가 최소한10년은 후퇴됐다고 우려하고있다.

일본의 외교基軸이 아시아를 발판으로 하고있다고 강조한 이 외무성관리는 이번 교과서문제로 아시아에서의 외교기반이 취약해졌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이나 美日정상회담에서 일본을 중시하는것도 韓·日및 日·中共우호관계가 아시아연합과의 유대관계를 평가하는데서 비롯됐으나 이번 교과서문제로 그기반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다는것이다.

일본은 교과서문제에 대해 강경일변도였던 한국에 대해 몹시 신경을 썼다.

26일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교과서문제에대한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일본외무성의 스노베(須之部) 사무차관은 崔慶祿주일대사에게담화내용과 배경을 사전에 설명했다.

일본정부의 崔대사를 통한 사전배경설명은 주일 중공대리대사에게 행한 배경설명보다 1시간앞서 이뤄졌으며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내용에도 중공보다 한국을 앞서 기술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정부가 韓·日우호선린관계를 위해 일본정부의 수습방안을 받아들여준데대해 크게환영했다.

한편 이같은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많은지식인들은 이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키위해 단계적으로는 韓·日합방등 근세사부분에 대해서 즉각 是正하고 고대사와 중세사 부분은 韓·日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 계속 연구 수정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입을모으고있다.

메아리

시네마테크

오랜만에 새로 개봉된 국산영화를 하나 구경했더니 별로 새맛이 없다. 하필 본 영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어떻게하면 옷을 좀 더 벗기나 하는 궁리만하고 영화를 만들고있을 생각은 전혀 안하는것같아 불유쾌하다. 극장앞에 나붙은 선전간판이나 포스터들도 온통 도색영화광고같은것 일색이고 어느것 하나 다시 쳐다보고싶은 그림이 없는것도 역겹다.

이따금 입맛이 떨어졌을때 옛날 먹어본 별미의 음식 생각이 나듯이 기억에 남거나 이름으로 들은 옛날 영화들이 보고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디 가서 그런 영화들을 볼수있단말인가.

영화필름수집가인 吉昌寬씨가 6백여편의 우리나라 영화를 모아놓고 있다니(한국일보 8월27일자 7면보도) 우선 반갑고 고마와진다. 산일되지않고 누군가가 가지고있다면 한 개인만의것이 아니다.

한국영화진흥공사가 73년에 설립되면서 필름보관소를 부설하여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제작사와 위탁보관등으로 필름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현재 도합 8백20편쯤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성영화 시대것은 완전품이 한편도 없고, 가장 오래된것이 46년에 만든 崔寅奎의 「自由萬歲」며 대부분이 60년대이후의 것이다. 吉昌寬씨가 개인의 힘으로 그만한 양을 확보한것은 가히「한국의 랑글르와」라 할만하다.

古映畵전문영화관인 시네마테크는 세계 여러나라에 있지만 가장 유명한것이 파리에 있는것이고 그 설립자가 앙리·랑글르와다. 그는 고교생시절부터 세계각국의 영화필름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1977년 62세로 죽을때까지 약 5만편을 참고에 쌓아 파리의 시네마테크를 세계 최대의것이 되게했다.

古映畵시네마테크는1934년스토크홀름과 베를린에 생기고 이듬해 런던과 뉴욕에개설되기는했지만 랑글르와가 1936년 샹젤리제의 조그만 영화관을 빌어 옛날 필름을 돌리기 시작한것이 역사적이었다. 2차대전중에는나치스가 1937년 이전에 만든 모든 프랑스영화를 없애려고 했을때 그의 컬렉션을 용케 나치스의눈으로부터 숨겨火刑을면했다. 나치의 검열에 걸려 버리게된 영화도 많이 구했다. 1968년 앙드레·말로 문화상이 파리의 시네마테크를 국가의 관리하에 두기위해 앙글르와를 퇴진시키려 했을때 온 세계영화인들이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결국 그는 자리를지켰다.

파리의 시네마테크는 매일 5、6편씩의 흘러간 영화를 번갈아 계속 상영한다. 한군데만 가지고는 연일의 장사진을 다 수용할수 없어서 78년에는 퐁피두문화센터안에 시네마테크를 하나 더 만들었다. 파리에 사는 재미는 시네마테크에 가서 왕년의 명우들을 만나는일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50년대말 프랑스 영화계에 신풍을 일으킨 누벨·바그의기수靑, 장·뤼크·고다르니 프랑스와·트뤼포니하는감독들이 영화를 배운 곳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시네마테크였다. 프랑스정부는 현재 파리 시네마테크에 예산의 70%를 지원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吉씨가 어렵게 모은 필름이나 영화진흥공사에 보관된 필름들이 창고속에 처박혀만 있어서는 활동사진이 아니라 죽은 사진이다. 전용시네마테크 하나를우리도 가져야겠다. 언제든지 羅雲奎를만나고 金勝鎬를 볼수있어야한다.

국제필름보관소연맹에는 35개국이 가맹되어있지만 아직 제대로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은 업저버의 자격밖에 없다. 국산영화뿐 아니라 각국 시네마테크와의 교류를통해 세계적 명화들이 우리 시네마테크에서 돌아가고 있어야할것이다. 비토리오·데·시카의 「자전거도둑」이나 마르셀·카르네의「인생유전」을 보지못한 세대가 지금 우리영화를 만들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술작품가운데 세계무대에 내놓아서 가장 부끄러운것이 영화다. 우리영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벗길궁리만 하고 있지 않으려면,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배운 교실이 우리에게도필요하다.

海外토픽

◇다이어트 3년에 균형잡힌 몸매

1백24파운드의 균형잡힌 몸매를 자랑하는 「82년도의여성」바버라·먼부인이 3년전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고있다. 한때 2백50파운드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바버라는 3년간의 엄격한 다이어트로 몸매를 가꾸어 지난25일 런던 서보이호텔에서 열린「날씬한 여성선발대회」에서 맵시여성으로 뽑혔다. 【런던25일AP電送=聯合】

주동자 空軍一兵
★케냐 不發쿠데타 밝혀져

지난1일에 발생한 케냐공군의 불발쿠데타주모자는 사병인 헤제키아·오추카一兵인것으로 26일 탄자니아의한 법정에서 밝혀졌다.

쿠데타기도가 좌절되자 오추카와함께 2명의 공군조종사(장교)를 「납치」、탄자니아로 탈출한 판크라스·오쿠루병장은 케냐정부가 탄자니아를 상대로 조종사송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열린 한법정의 심리에서 오추카가 쿠데타를 기도한 인민구제평의회의장이었다고 증언했다.

오추무는 자신들이 지난1일 탄자니아에 도착한직후탄자니아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르에스살람=AP】

學生오토바이 禁止
日、交通사고 크게늘어

일본의 전국사친회연맹은 급증하고있는 10대들의 오토바이교통사고 희생을 막기위해 학생들의 오토바이운전을 금지시키기로 결정。

전국사친회연맹은 최근 일본북부의 센다이시에서 회의를 열고 10대들의 오토바이타기가 위험하다고 결론짓고 고교생들의 오토바이구입과 운전을 금지키로 결정했는데 학생의 부모가 신청하여 사친회、관계기관 그리고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는것。【東京=UPI】

前副수상 重勞動
★방글 재직중 부정협의로

군부쿠데타에 의해 실각된 前방글라데시정권의 부수상을 지낸 바리씨가 재직당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최근 계엄법정에서 3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계엄법정은 바리씨가 재직시 약19만달러에 달하는 어선및 선박용엔진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지적하고 그가 3년노동형과 함께 벌과된2만달러의 벌금을 내지못할경우 대신 중노동을 2년 더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카=AP】

"再選되면 한국 꼭 訪問하겠다"

오색韓服차림 僑民들의 태극기 물결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라스팔마스 세네갈

◇꽃다운 少女의 미소에 26일 라스팔마스空港에 도착、교민어린소녀들의 꽃다발을 받으며 환히 웃는 全대통령내외。【라스팔마스26日電送=聯合】

5百교민환영받아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시에 寄着한 全斗煥대통령내외는26일하오 (현지시간) 공항에서 5백여명의교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교민들은『대한민국 만세』『파도와싸우는 대한의남아』라고쓴 20여개의 플래카드와 全대통령의사진이담긴 피킷등을들고 나왔으며 공항청사 정면에는 태극기와 스페인국기가 나란히 게양돼있었고 그밑에 『전두환대통령각하 내외방문환영』이라고쓴 대형현수막이 걸려있었다.

全대통령내외가 트랩을 내려오자 오색 한복차림의 교민들은 손에손에 태극기를흔들며『대한민국만세』를 외쳤고 全대통령내외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냈다.

이날 공항에는 라스팔마스 한인회원들 50여명도 나와 全대통령내외를 환영했는데 全대통령은 한어린이를 번쩍 안아올려 볼을 맞추기도.

라스팔마스주지사는 신병으로 마드리드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이날 공항에는 출영하지 못했다.

아쉬운 작별인사

○…全대통령은 9박10일간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낮 11시 (한국시간26일하오8시) 세네갈의 다카르 공항을 離陸.

全대통령은 이날 세네갈을 떠나기에 앞서 디우프 대통령과 함께 다카르 요프공항에 도착、세네갈정부 고위인사들의 작별인사를 받은뒤 공항귀빈실에서 이들과 잠시 환담.

全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디우프대통령및 피암수상내외가 동석한 가운데 귀빈실에서 약5분간환담하면서 『아프리카순방마지막나라인 세네갈에서 즐거운시간을 보내 순방으로 인한 피로가 말끔히 풀렸다』면서『디우프대통령과 피암수상 그리고 세네갈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

全대통령이 디우프 대통령에게『내년선거에서 당선되기를바란다』고 말하자 디우프대통령은『내년에再選되면 꼭한국을방문하겠다』고말한후『수상내외도 한국을방문토록하겠다』고다짐.

환담을 끝낸후 全대통령은 귀빈실복도에 도열한 세네갈주재 외교사절들과 작별인사를나누고애국가와 세네갈국가가울려퍼지는가운데 의장대를 사열했다.

융숭한 歡送인사

○…全대통령과 디우프 세네갈대통령은 26일 상오 (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약3분동안 미리 준비한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양국배석자들의 박수속에 서명한 문서를 서로 교환했다.

디우프대통령은全대통령이 입장하기 3분전에 미리 대통령궁 1층 별실공동성명서명장에 나와 김준성부총리등 우리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현관입구에서 全대통령을 영접.

태극기와 세네갈국기가 나란히놓인 테이블에 앉은 양국원수는 한글과 프랑스어로된 공동성명의 각페이지마다 서명을 마친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가운데 서명문서를 교환했다.

이어 양국원수는 2층별실로 자리를옮겨 약25분동안 단독으로 환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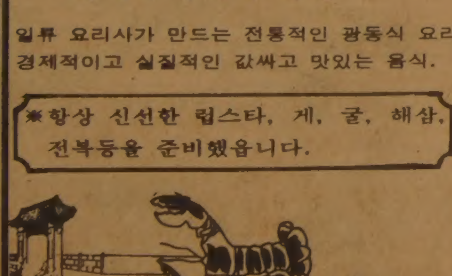
양국원수는 대통령궁 앞뜰에서 의장대를 사열한뒤 함께 승용차에올라 모터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다카르 시민들이 손을들어 환송하는 시가지를 지나 공항으로 향했다.

많은것 意見일치

○…全대통령과 디우프대통령은 25일 상오 11시30분 (한국시간 하오 8시30분) 단독회담을 끝낸후 대통령궁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대각료회담장에 입장、양측의 토의결과를 보고받았다.

디우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장시간에 걸친 단독회담에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많은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양해가 되면 확대각료회담결과를 한국측에서 金埈成 부총리가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라스팔마스·다카르=尹國炳특파원】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全대통령 아프리카4國 巡訪 결산

「韓·阿 共感帶」 형성

開途國역사 能動的 主體로

阿洲외교 對北傀우위轉機

『개발도상국이 역사의受動的인 客體에서 능동적인 主體로 나서야한다는 역사의식아래 집단적인 自助精神으로 南南協力의 新紀元을 이룩할 開發戰線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全斗煥대통령은 자신의 아프리카巡訪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짧은 한마디는全대통령의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의 성과와 의의를 결론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진者」와 「못가진者」라는 경제적측면에서 흔히 「南北」문제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지만 「南南協力」이라는 말은 언뜻 생소한것 같으나 사실 개발도상국및 후진국들에 있어서는 절실한 문제였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非동맹회의, 경제적으로는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O)라는 이름아래 모여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이런 마당에 「못가진貧國」들끼리 협력하자고 공동의 「開發前線」을 제창한것은 의의가 유별난것이다.

한마디로 全대통령의 이번아프리카巡訪은, 멀게만 여겨졌던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架橋를놓는 역사적의의와함께 이들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함으로써 아프리카속에 「한국」을 심는 계기를 마련했다.

反植民 非同盟외교를 통해 정치적독립기반을 닦은 아프리카국가들은 이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행세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개발이 급선무라는 자각을 하고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을 부르짖은 「南南協力의개발전선」은 비록 아프리카뿐아니라 아시아·南美등의 開途國에도 상당한 共感帶를 형성할것으로 보인다.

「開發前線」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은 개발도상국가들이 飢餓, 질병, 문맹등 절대빈곤으로부터의해방, 南北간의 貧富격차해소, 先進國위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타파하기위해 개발도상국간의 자본및 기술교류와 交易증진 그리고 對선진국문제에 있어서 단결촉구등을 들수있을것 같다.

즉 開途國자신 스스로의 自助노력과 단결로 하루속히 빈곤에서 벗어나자는것이다. 全대통령은 「집단적 自助노력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人力및 기술개발위해 제도적 장치를강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제도적 장치는 우리가 後發開途國을 위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있는 기능人力의 양성, 훈련, 파견등 對外協力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원조의 효율화와 외교적 명분을 높이고 현재 유엔과 협의중인 「국제기술개발훈련원」의 설치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사실 全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頂上外交는 개발경험傳受를 위한 기술협력을 우리가 기대한것 이상으로 절실히 원하고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도울수있는 분야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이 아프리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것은 같은 식민지경험을가진 정신적인 유대감이 있고,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互惠평등한 협력을 할수있으며 자기네 발전단계에 적합한기술및 정책의 後援가능성등 여러가지 장점이 부수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걸음 앞선 개발경험과 기술이 무한한 잠재력과만남으로써 서로가 필요를충족시키는 同伴·補完관계를 이루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인 眼目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며 선진국으로부터 수탈당해온 경험을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일방적인 이익추구로 임할경우 거센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명심해야할것이다.

따라서全대통령이 頂上들과의 회담에서 아프리카개발基金에의 가입에 이어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2천4백만달러의 出資를 약속한것도 바로이런 차원에서 다짐한것으로 볼수있다.

頂上회담에서는 이러한 經協을 더욱 구체화시킬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자세한 얘기가 오갔는데 앞으로협의진전에따라선 20~30억달러규모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제2의 中東붐을 기대할수도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商談내용을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철도차량 도로건설 발전소건설新首都건설, 가봉에서는 횡단철도,우라늄광개발등 개발사업참여 항구 건설등 대형프로젝트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 진출을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케냐와 海運협정, 나이지리아와 경제기술협정, 가봉과 해운항공협정, 세네갈과 2중과세방지협정등이 구체화되었다.

이제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옆에와 닿고 있다는 느낌이다.

【尹國炳특파원】

해설

交易증진등 「波及효과」기대

先進國위주 經濟를 단결로 타파

이번 아프리카순방으로 太平洋정책(太平洋頂上회담)·北方정책(인류화합인 통일방안·蘇·中共과의관계개선)과 함께 우리외교의 3대 당면정책의 하나인 對개발도상국 정책을본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특히 이들나라의 頂上들과의 회담을통해 레바논의 外軍철수지지, 南阿共의인종차별과 나미비아 不法점령에 대한 규탄에 같이 보조를 맞춘것은 제3세계로부터 박수를받는 외교적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순방국들이 아프리카 최대富强國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장국인 케냐, 1인당국민소득이 가장높은 가봉, 西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리더이자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세네갈등 블랙 아프리카중에서 가장 영향력이큰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派及효과도 적지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우리외교는 아프리카에서 苦戰을 면치못해 北傀에 뒤져 온게 사실이지만 이번의 頂上외교로 아프리카外交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했다고할수있다.

이번에 방문한 나라들은 모두 비동맹 中立을 표방하고 南北韓과동시에 修交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성명에서 「통일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南北韓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이라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전폭 지지한것은 對北傀優位를 立證하고도 남는것이다.

작년 아세안순방에 이어 이번에 아프리카순방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대한 지지를 얻어낸것은 경제적성과에 못지않을 정치적성과로 꼽아야 할것같다.

世界의 社会面

소련인은 不親切하다

정부의 「친절」캠페인도 虛事

외국인 旅行者 空港서부터 곤욕

호텔·식당豫約해도 "방없다" "딴전"

◇호텔카운터에서 『당신 (카운터여종업원) 이 할일이란 간단해。모든걸 정리해놓고선 그저 빈방이 없다고만하면돼』

◇식당에서 『손님, 뭘 주문 하셨었죠?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소련에서의 일상생활은 불친절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친절하고 다정한 소련사람이라도 일단 제복을 입고 직장에 나가면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외국인을 대하는태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소련에서 당하는 곤욕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

돌처럼 굳은 표정의 비밀경찰(KGB) 요원이 입국비자를 이잡듯 한줄 한줄 체크해 나간다. 조사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부분 외국인은 자신이 체포당하는걸로 생각한다.

호텔과 식당에서도 불친절은 계속된다. 예약을 한경우에도 서너번 확인을 하고서야 방을 준다. 처음에는 무조건 방이없다고 한다.

식당에서 아무리 종업원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 지배인이 나타나야 겨우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온다.

소련정부마저 소련국민의 불친절에 골머리를 썩이고있다.

관영언론매체를 동원해 친절캠페인을 벌이고 책자를 만들어 친절운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않다.

버스정류소를 그냥 통과해 버리는 버스운전사, 신호등을 무시하고 마구 질주하는 고관용 검은세단들은 갈수록 늘어만간다.

불친절이 적발될 경우에는 15일간 구류처분을 받기도한다.

소련인이 이처럼 불친절한 이유는 뭘까. 소련인이 천성적으로 거칠고 불친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없다.

소련인들은 자신들이 불친절해진 이유가 생활의 각박함에서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빵한조각을 사기 위해서라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 좁은 주거환경, 단조로운 직장생활, 불편한 교통수단, 획일적인 오락활동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한서방인은 소련인이 이처럼 불친절하게 되어버린 이유가 러시아혁명때 제정러시아잔재를 추방하는 운동을 벌이는 도중에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어진 일만을 하고 무뚝뚝한 소련인의 습관이 이때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헤럴드·트리뷴紙】

日내년防衛費 2조8천억엔

「83會計」豫算案

【東京26日AP=聯】 일본방위청은 총2조8천억엔(美貨1백11억달러)규모의 83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방위청대변인이 26일밝혔다.

쓰루또·에이스께 방위청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에 5개년방위장비구입계획의 제1차연도에 집행될 무기및 군사장비구입, 연구개발비등 총 1조5천7백여엔(美貨62억달러)이 포함되어 있다고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83회계연도의 무기구입품목에는 미국의 승인아래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될 F15제트전투기 20대와 P3C 對잠수함초계기 10대등을 포함한 총 83대의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다고말했다.

이 예산안에는 이 외에도 탱크75대 헬리콥터23대 구축함 3척 잠수함 1척등의 수입도 포함됐다고 이대변인은 덧붙였다.

美, 2개佛會社 制裁

對蘇禁輸 위반, 技術수입 금지

【워싱턴26日AP=聯】 美행정부는 26일 시베리아―西歐간 가스관부설공사와 관련한 레이건대통령의 對蘇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가스加壓機3대를 선적한 드레서·프랑스社등 2개 프랑스회사에 대해 『잠정거절』명령을 발동, 거래기피회사명단에 포함시켰다.

美상무성이 이날 발표한 잠정거절명령에따라 드레서·프랑스社는 미국내 모회사인 드레서·인더스트리즈社(달라스소재)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으며 소련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거래회사인 크뢰조·르와르社도 같은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드레서·프랑스社는 이미 대형가스 가압기3대를 선적하고 프랑스의 르·아브르港에서 대기중이던 보로딘號를 이날소련의 리가港을향해 출항시켰다.

◇PLO撤收 감시하는 伊兵士

팔레스타인戰士의 철수감시를 위해 26일아침 레바논에 도착, 美·佛軍과 합류한 이탈리아軍의 한병사가 베이루트港에서 철수과정을 지켜보고있다. 검은새 닭털을 꽂은 흰헬멧을쓴 모습이눈길을끈다. 【베이루트26日AP電=聯】

팔 海上撤收마쳐

【베이루트·예루살렘 26日AP=聯】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해상철수는 26일 6백97명의 대원들이 이탈리아 여객선 산토리니號에 승선, 北예멘으로 향하고 부상자 1백67명도 키프로스와 그리스병원에서의 입원을 위해 서독적십자소속 병원선 플로라號편으로 베이루트港을 떠남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완료됐으며 27일부터는 베이루트―다마스커스고속도로를 이용한 육로철수가 개시된다.

템렉스

바그너祝祭와 레바논戰爭

해마다 여름이면 독일의 바이로이트에선 바그너祝祭가 열린다. 바그너가 직접 완성한 바이로이트 祝典극장에서 1개월이상 바그너 작품만을 공연하며 樂劇의 창시자인 바그너를 기린다.

내년이 바그너 逝去1백주년이라 올해축제는 그 어느때보다 盛況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해 바이로이트祝祭의 하이라이트는 바그너逝去1백주년을 기념하기위해 특별연출한 「파르시팔」인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제임즈·레빈이 연출하고 베를린오페라단의 비스코츠·프리드리히가 지휘를 맡았다.

「파르시팔」을 둘러싸고는 바이로이트 初演이전부터 말이 많았다.

게르만民族主義자이고 反유태주의자인 바그너의 작품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표현돼있는게 「파르시팔」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독일신화에서 소재를 구해 바그너류의 신비주의적인 분위기조성으로 청중을 무아경으로 몰아가는 「파르시팔」 공연은 자칫하면 反유태주의와 순수인종주의를 청중에게 고취하게 될지도 모르기때문이다.

유태인 박해의 代名詞로 통하는 히틀러는 바로 바그너狂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작품 공연이 중단되곤 했다는 보도는 여러번 있었다.

「파르시팔」 공연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침공으로 인해 유럽전역에서 서서히 고개를 다시 쳐들고 있는 反유태주의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유태인이 파리에서 연거푸 수난을 당하고 독일의 新나치주의자들이 시나고그(유태인교회)를 습격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다.

바이로이트축제 당국자들은 反유태주의가 바이로이트극장에 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군(PLO)을 西베이루트에서 몰아냄으로써 군사적승리는 일단 얻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西베이루트에서 보여준 무자비한 殺戮행위는 전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곳곳에서 反유태주의가 고개를 들게했다.

바이로이트의 「파르시팔」공연을 둘러싼 反유태주의 논쟁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잃은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본보기이다.

【李炳圭기자】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업이
저희 광고로 인해 더욱 더 번창하며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정확히 서비스하는 것이
저의 맡은바 소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여러분들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 : 533-2361～4

월～금(9:00～6:30), 토요일(10:00 ～5:00)

한국일보 광고국

〈시 · 일람표〉

1982년 9월7일부터 시에서 나온 통계원이 신분증을 갖고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잠간 조사합니다.

◎금년 11월8일 열리는 시및 교육위원회 선거의 투표권의 당신의 적합성.
◎공공과 분리된 학교 시스템 사이의 교육재산세 할당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돕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분배
◎배심원 명단 준비및
◎ 다른 시 프로그램들의 인구사항
◎통계원은 이름·나이·재산상태(주인 또는 세든사람)·학교보조및 주택자의 거주지등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금년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통계원이 불어학교를 위한 유권자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넣을 것인가를 질문할 것입니다.
—통계원이 방문할때 일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십시요. 다를 경우는 변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경우라도 통지는 당신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고쳐서 가능한한 빨리 ENUMERATION NOTICE으로 미리 지불된 통지와 함께 우표를 넣어 편지하십시요. 더 이상의 문의는 지방 세무서에 알아보십시요.

Ontario
Ministry of Revenue

"상습적으로 外貨반출 묵인"

警察、「공항檢索員사건」 수사서 밝혀

10여차례 걸쳐 30만원받아

換錢둘러싼 銀行관계 추궁

홍콩인 거액 밀반출기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江西경찰서는 27일 金浦공항의 보안검색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인 한국 안전기업(K·S·T)의 X레이검색반 C조 조장 金煌洙씨 (37·서울 江西區內鉢山洞주공아파트 21동201호)와 검색 조원 林英一씨 (33) 朴永萬씨 (28) 申明澈씨 (25) 張仁弘씨 (31) 등 5명이 국제밀수조직과 공모, 상습적으로 외화반출을 묵인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외환관리법 위반및 배임 수증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검색조장 金씨는 지난13일과17일 두차례에 걸쳐 국제호텔801호실에서 국제밀수조직의 국내판매책인 李鍾城씨 (50·수배중·A오퍼상무·서울城東區華陽洞7) 등으로부터 『홍콩인 賴尙志씨(60)가 거액의 외화가 든 가방을 갖고 출국할테니 X레이검사때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함께 10만원을 받아 조원 林씨등과 나눠 쓴것을비롯해 지난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콩 보석商들 "한국가면 李鍾城만나라"

경찰은 매부 李鍾城씨가 『다른 검색조가 근무할때도 수화물을 통과시켰다』는 진술에따라 C조외의 다른 검색조와의 공모여부도 캐고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6월10일 발생한 미화 34만불 밀반출기도사건에도 안전기업 직원들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했던 A조 조장 李모씨 (37)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경찰에의하면 ◀홍콩에서보석상을하는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에가면 李鍾城씨를 만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나돌고있고 ◀34만불밀반출기도사건의 주범이 화교李恕昇등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한국인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사건과 34만불사건사이에 관련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것.

李鍾城씨는 지난 69년부터 한국 안전기업 검색부장으로 근무하다 79년12월 부하직원이 금괴밀수사건과관련돼 퇴사했으며 李씨의처남인 金煌洙씨도 지난74년 李씨의주선으로 이회사에 들어와 처남매부가 함께근무하다 79년10월 검색조장으로 승진했다.

경찰은 또 판매책·張惠基씨 (34)로부터 밀수보석을 인계받아 시중에판매한 하수인이 보석도매상 보령당주인 金江一씨 (46·수배중·서울鍾路區禮智洞47) 였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와함께 환전책奇모씨 (44·K엔지니어링대표·서울道峰區彌阿3洞134의3) 가 여행자수표는 제일은행 중앙지점에서, 일화는 암달러상을통해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奇씨의 처남이자 제일은행 중앙지점장인 鄭淙石씨 (50) 와 외환계대리 李洪雨씨 (33·서울麻浦區新水洞69의17) 등 2명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奇씨와의 공모여부를 수사하는한편 암달러상 金모씨 (40·일명성희엄마)를 수배했다.

지점장鄭씨등 은행직원들은 다른사람의 여권을갖고온 사람이 위임장이없으면 대리환전을 해줄수없는데도 奇씨가 갖고온 張모씨 (26·유학생) 등 8명의 여권으로 2만1천달러의 여행자 수표를 환전해준 혐의다.

자금운반책 賴씨는 지난19일하오 4시30분께 거액의밀수결제대금을 숨겨갖고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세관원에의해 적발됐는데 경찰은 당시 근무중이던 검색조장 金씨는 외화뭉치가든 가방을 발견하고도 통과시키려했으나 金씨로부터 수고비를 적게받아 불만을 품었던 林씨가 세관원에 귀띔, 적발된것으로 보고있다.

수배중인 李鍾城씨는 모대학 중국어과를 중퇴, 중국어등 5개국어에 능통한데 지난5월8일 금괴 1천7백여만원어치를 밀수하려다 金浦세관에의해 적발된 홍콩인 周月嬌씨, 吳信嘉씨등과 관련된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周씨등이 李씨와의 관련사실을 극구부인, 20일만에 풀려난일도 있었다. 【金宗來기자】

◇홍콩을 거점으로한 국제보석밀수조직으로부터 돈을받고 밀수결제대금의 밀반출을 묵인해주려했던 한국안전기업 X레이 검색조원들。(바른쪽부터 金煌洙씨、林英一씨、朴英萬씨、申明澈씨、張仁洪씨)

外換銀行 홍콩九龍지점 女職員

57만弗(美貨) 빼돌려

컴퓨터造作…남편함께 逃走

외환은행 홍콩九龍지점(지점장 李周永)현지고용여직원이 미화57만달러 (한화 4억2천1백80만원)의 은행돈을 빼내 가족과 함께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외환은행에의하면 九龍지점의 컴퓨터담당 여직원 마이미 (歐陽美媚·30)씨가 81년 7월부터 지난6월까지 1년동안 남편및 동료직원1명과 짜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숫법으로 57만달러를 빼내 지난 6월말 남편과 함께 달아났다는 것.

九龍지점은 범행에 공모한 계리담당 남자직원1명을 파면하고 이사실을 경찰에 고발, 현지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있다.

마이미씨는 이지점에서 7년째 근무해왔는데 九龍지점 명의의 잔고없는 어음이나수표를 발행, 결제가 돌아오면 자신이 담당하고있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현금을 빼돌리는 숫법을 썼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자체감사결과 달아난 마이미씨의 재정보증인이 [illegible]6만달러어치의 재산이 있고 마이미씨 남편명의로된 60만달러어치의 재산이 있어 이를 처분하면 은행측의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扶餘 雙北里寺址 百濟窯址로 확인

【扶餘】지금까지 절터로 알려졌던 충남 扶餘郡扶餘邑雙北里 寺址가 발굴조사결과百濟시대의 窯址로 밝혀졌다.

27일 忠南大발굴조사단(단장 尹武炳박사)에 따르면지난25일 발굴조사를 끝낸결과 지하1m30cm 지점에서방형礎石2개와 원형 礎石1개등을 사용하여 축조한 窯址와 부속건물지 (작업장)를확인했다는것. 【聯】

日방문 歪曲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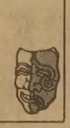
在美 朴永昌목사、귀국報告會

在美 朴永昌목사 (67·사진·대한南加州교회)는 27일 상오9시30분 서울 YMCA회관에서 지난4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자신이 벌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항의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일본정부의조속한시정을촉구했다.

朴목사는 讀賣·朝日·每日등 일본주요 일간지에 신사참배 순교에대한 기고와교회설교를 통해 『신사참배는 강요가 아닌 장려』라는 일본역사교과서 기술의 허구를 반박해 지식층의 높은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數學王」의 아버지

품팔이로 子女 키워온 吳良洙씨



「수학왕」의 집을 찾다보니 기자는 「달동네」를 헤매고 있었다.

어머니는 12년전에 돌아가셨다. 어 나이보다 주름살이 많아 보이는 아버지 吳良洙씨 (62·사진)는 품팔이를 하며 어려운 가계를 꾸려가는 분이었다. 기자는 잠시 얼떨떨한 기분이었으나 이어 가슴을 죄어오는 갈등을 어쩔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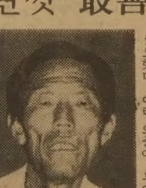
지난번 제1회 전국대학생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龍根군(22·서울大)이 살고있는 곳은 서울鍾路區昌信洞638의 달동네.

정확한 주소를 가졌는데도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집을 찾을수가 없었다. 할수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서울大수학과 吳龍根군의 집을 아느냐』고 물었다. 『아、수학왕 말입니까』하고 간단히 집을 알려준다. 吳군은 달동네의 자랑이었다.

게딱지만한 집에、吳군의 책장을 뒤로하고 앉은 아버지 吳씨의 주름진 얼굴…。

吳군은 『국민학교때부터 「짱구박사」「도사」라는 별명이 붙어다닌 녀석이지요』 얼굴 가득한 주름이 모두 미소로 바뀐다. 吳군의 수학실력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지만 딴형제들도 수학이 뛰어난 편이라고 비친다.

"자식들에게 형편껏 最善다할뿐…"



吳씨는 20년전 가난하지만 자식 공부만은 제대로 시켜보자는 뜻에서 무작정 상경을했다. 4남1녀를 이끌고 시작한 서울살이는 정말고달프기만 했다. 아이들이 떤든다고 단칸 셋방에서 쫓겨나기도 여러번.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섭게 뛰었다. 품팔이도하고 서울에서 물건을 받아 시골에 가 파는 행상도했다. 이런 와중에 부인은 吳씨가 지방에 간사이에 발병, 치료한번 제대로 못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를「불행」에서 구해주었다. 아들 둘이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龍根군과 딸이대학에 다니며 막내아들이 高3으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다.

『사람은 지위가 아무리 높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름대로의 애로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수학왕」을 키워낸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鄭在龍기자)

颱風엘리스、東海로 빠져

嶺東 豪雨경보…대관령2백56mm

【釜山=朴珍列기자】제13호태풍 엘리스가 북상함에따라 남해·동해남부 해상과 영남동부지방에는 27일 하오3시현재 부산48mm、蔚山54mm、忠武25mm、晋州55mm、浦項53mm、大邱56mm의 강수량을 보였다.

그러나 大關嶺2백56·1mm를 비롯 江陵1백13·0mm、束草1백46·7mm、蔚珍71·4mm등 영동지방에는 2백~4백mm의 호우경보가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를 퍼부었는데 이지역에는 더많은비가 올것으로 보인다.

이날부산南浦洞내항에는8백여척의어선들이대피했다.

北上중 세력弱化

제13호태풍 엘리스는 일본 九州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계속북상, 우리나라 영동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부었으나 큰피해는 남기지않은채 동해를 거쳐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중앙기상대는 27일 하오3시현재 태풍 엘리스는 북위35·7도、동경 1백32도인 독도남쪽 1백70km해상(蔚山동쪽 2백30km)에서 매시35km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이날밤 9시에는 독도근해 해상까지 진출할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기상대는 이날하오3시를 기해동해일원과 울릉도·독도해상에 태풍경보를 내렸으며 이날상오10시에는 영동지방에 태풍주의보를 내렸다.

가옥 百12채 浸水

【東海】호우경보가 내려진 영동지방에는 27일 상오9시께부터 초속10m의 강풍을동반한 집중호우가내려 이날하오3시현재 東海시에1백41·1mm、三陟郡道溪邑에 1백50mm의 집중폭우가 각각쏟아져 가옥1백20채가 침수되고 도로 2개소의교통이 두절되는등 피해가 늘고있다.

이폭우로 이날상오 10시께 강원도三陟郡道溪邑新里도로 확장공사장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20톤가량의 흙더미가무너져내려 三陟~太白 구간의 교통이 두절됐고 하오1시께부터는 산사태가 우려되는東海~旌善郡 臨溪구간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등 시외버스노선 2개소의 교통이 두절됐다. 【聯】

江陵이재민 2百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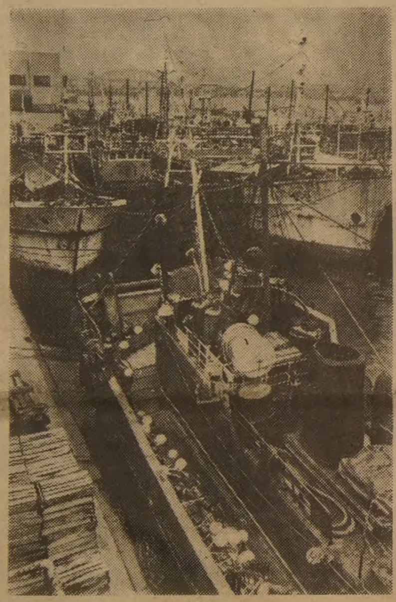
【江陵】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인 江陵지방에 27일하오5시현재 1백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제방 7개소 1백10m가 유실됐고 일대55가구 2백여명의 주민들이 고지대마을로 긴급대피하는등의 물난리를 겪었다. 【聯】

嶺南 주의보해제

한편 기상대는 이날밤 자정을기해 영남동해안지방의 태풍주의보를 해제하고 남해일원해상의 태풍주의보를 예상최대파고 3~5m의 파랑주의보로 대치했는데 남해안지방은 해일의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雪嶽山 入山통제

【東草】雪嶽山 공원관리사무소는 태풍엘리스가 점차북상함에 따라 27일상오10시부터 雪嶽山 입산을 전면통제했다.



◇태풍 엘리스의 영향으로 많은어선들이 부산南浦洞내항에 대피했다。【釜山=金海雲기자찍음】

警官이 內緣마담 찔러

서울서 女人중태

27일 하오1시30분께 서울東大門區祭基1洞844 은하찻집에서 淸凉里경찰서 직할파출소 소속 金泰燮순경(38)이 내연의관계인 찻집주인 崔福禮씨 (34·여)를송곳으로 머리와 옆구리등을마구찔러 중태에 빠뜨린뒤 달아나다 붙잡혔다.

金순경은 이날 술을마시고 찻집으로 들어가 손님3명을 모두쫓아내고 崔씨와 찻집종업원 姜모양(22)만 남게한뒤 갑자기 崔씨를 찌르고 京東시장쪽으로 달아나다가 비명소리를듣고 현장을목격한 안집주인 吳錫振씨(29)가 5백m가량 뒤쫓아 격투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崔씨가 생활비등을 자주요구하자 범행한것으로보고 金순경의신병을확보, 정확한동기를 캐고있다.

3년전부터 내연의 관계였는데 경희의료원으로옮긴 崔씨는 중태다.

慶北、첫「擬似뇌염」

濟州道內엔 환자11명으로 늘어

【大邱】경북도내에선 처음으로 浦項에서 의사뇌염환자가 발생했다.

27일상오 경북대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한 金모양(浦項市上島洞)이검진결과 의사뇌염으로 밝혀졌다. 【聯】

擬似뇌염1명숨져

【全州】26일 하오2시께 전남光州市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서 김종양씨 (44·전북淳昌郡鎭林面栗北里76) 의 둘째딸 (13·淳昌栗北국교 6년) 이 뇌염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聯】

濟州、또「뇌염증세」

【濟州】26일 하오8시께 제주北濟州郡翰林邑金陵里 김숙자여인 (33) 의 장남(8) 이 뇌염증세로 濟州도립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중태다.

이로써 지난 4일부터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의사뇌염 환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1명의 진성환자등 3명이 숨지고 4명은 입원가료중이며 4명은 완쾌됐다. 【聯】

災害구호법 시행령 국무회의、改正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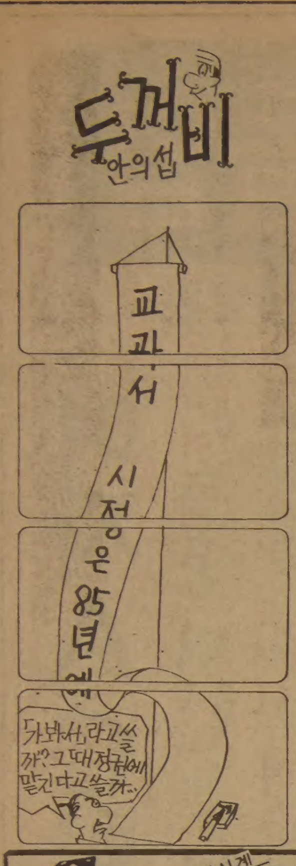
국무회의는 27일 災害구호법 시행령개정령과 災害구제로인한 義死傷者구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災害로인한 이재민에게 주는 給食의 급여한도를 1人當 하루양곡 3홉과 부식비9원으로 되어있는 급여한도를 양곡은 1주일간은 하루白米4백32g、8일째부터는 白米2백88g과 精麥1백38g으로정했다.

鳥類學者 전병기敎授

【全州】조류학자인 圓光大 全병기교수(42)가 27일하오 全州市 南老松洞156의14 자택에서 별세했다.

全교수는 지난 7월29일 천연기념물 지정여부 조사차 갈매기 집단서식처인 전북沃溝郡미성읍 직도 답사에 나섰다가 바위가 굴러 부상、그동안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聯】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도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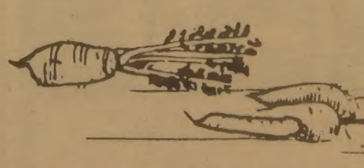
○채소 ○과일 ○화초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 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 도매 사업이니 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 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읍니다.

※시간 : 오전9시~오후10　(PICK-UP 또는 주문) ($1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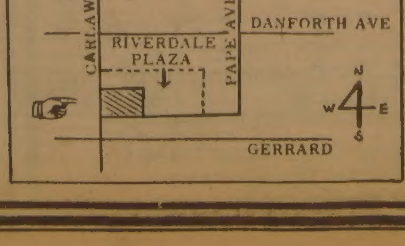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 · 가격 · 신용보장〉



한국男子A 4強돌입

朴利熙·金浣·金琦澤트리오 西獨을 3—0完破

여자A·C팀 準準決에

돌풍 男C는 강호日A에 분패

서울國際탁구

제2회서울국제오픈탁구선수권대회 3일째경기가 27일 잠실실내체육관서 속행, 한국은남자A팀이 4강의 준결승전에, 여자A·C팀이 8강의 준준결승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강호 美國과 스코틀랜드를 연파하고 8강에 올랐던 安宰亨과 吳炳萬의한국남자C팀은 9강을 노리는 강호 日本A와 접전끝에 3—1로 석패했으며 지난대회단식챔피언 黃男淑과 申得花의 한국여자B팀도 뜻밖에 복병 핀란드에 3—1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남자A팀은 朴利熙·金浣·金琦澤이 일방적인 우세를지키며 西獨을 3—0、스트레이트로 제압했다。한국여자 A팀도 梁英子·尹璟美가 쾌조를보여 벨기에를 3—0으로 완파했다。

◇梁英子·尹璟美 복식組의 파이팅 한국여자A팀의 분전。梁英子·尹璟美복식조가 벨기에의 카리엔, 바바라조와 맞서 21—12, 21—12로 쾌승했다。한국은 벨기에를 3—0으로완파하고 8강의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신진들로구성된 한국남자C팀과 대회에 처음출전, 패권을노리는 日本남자 A팀과의 남자단체전 준준결승。

첫단식에선 왼손잡이 吳炳萬은 같은왼손잡이로 놀라운 스피드를구사하는 사이또에게 21—14、21—19로 완패했다。그러나 2차단식에 나선 신예安宰亨은 매서운 스매싱으로 세계랭킹37위의 베테랑 마에하라를 맹공, 접전끝에 24—22、14—21、21—15로승리, 기세를 올렸다。

1m77의 큰키에 긴리치를 가진 安宰亨은 국제경험이 풍부한 강적 마에하라를 재치있는 백·핸드숏과 시원스런 스매싱으로 리드해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은 복식에서 21—11、21—18로 눌려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마지막 3단식에서 安宰亨은 발군의 스피드를 가진 단신 사이또의 속공에 밀려, 21—15、21—15로 졌다。

기대했던 한국여자B팀은 최근 슬럼프에 빠진 黃男淑이 첫단식에서 핀란드의 소냐·그레버그에게 21—19、21—15로 완패하며 일방적으로 눌렸으며 복식 1게임만을건져 체면을 유지했다。

한국남자A팀은 28일 하오 강호 프랑스와 스웨덴B를누르고 올라온 홍콩과 결승진출권을 겨룬다。홍콩은전진속공수원잉웨으로 전력을보강, 남자단체전의 다크호스로지목받고있다。한국여자 A팀은 오스트리아와, 한국여자 C팀은 日本과 준준결승에서 대결한다。

◇제3일 전적

▲남자단체 준준결승

한국A 3—0 서독
朴利熙 2 (21—18, 21—13) 0 보지크
金浣 2 (21—12, 21—12) 0 봄
金琦澤 2 (21—12, 11—21, 21—14) 1 보지크

일본A 3—1 한국C
사이또 2 (21—19, 21—14) 0 吳炳萬
마에하라 1 (15—21, 21—14, 22—24) 2 安宰亨
사이또·마에하라 2 (21—18, 21—11) 0 吳炳萬·安宰亨
사이또 2 (21—15, 21—15) 0 安宰亨

스웨덴A 3—1 잉글랜드
홍콩 3—2 스웨덴B

▲여자단체 3회전

한국A 3—0 벨기에
梁英子 2 (21—11, 21—12) 0 카리엔
尹璟美 2 (21—11, 21—9) 0 바바라
梁英子·尹璟美 2 (21—12, 21—12) 0 카리엔·바바라

한국C 3—0 홍콩
李美雨 2 (21—7, 21—13) 0 리슈란
朴末粉 2 (21—8, 21—9) 0 사라이·우람
李美雨·金淑姬 2 (21—12, 21—10) 0 리슈란·사라이우람

핀란드 3—1 한국B
그레버그 2 (21—15, 21—19) 0 黃男淑
맘버그 2 (21—19, 19—21, 21—17) 1 申得花
그레버그·맘버그 0 (19—22, 11—22) 2 黃男淑·申得花
그레버그 2 (21—17, 21—17, 11—21) 1 申得花

오스트리아 3—0 프랑스
캐나다 3—0 잉글랜드
스웨덴 3—0 덴마크
서독 3—0 인도네시아A
일본 3—0 인도A

쌍동이姉妹 얼굴같아 혼동

상대팀서 잇단抗議

◇스위스의 쌍동이 자매 베아트리스와 카르멘。

○…서울오픈에 참가한 각국선수단중에는 쌍동이 형제·자매등 가족선수들이 함께 출전, 흐뭇한 가족잔치 분위기를 이루고있다。

세계랭킹 32위에 올라있는 美國대표 주전에릭·보간(19)은 이대회에 은발의 긴머리를 휘날리는 멋장이형 스코트·보간(21)과 함께 참가,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있다。

형스코트는 모든일에 손위대접을 받고있으나 탁구에서만은 동생을 따르지 못한다고 추켜올린다。스위스 여자팀으로는 2명의쌍동이 선수가 출전, 이채를 띠고있다。

비테·베아트리스와 비테·카르멘 쌍동이자매는, 경기에 출전할때마다 상대방선수에게 혼동을 주어 항의의 대상이 된다고。

더우기 개인단식에 출전할 때는 벤치에 앉은 언니 베아트리스나 플로어에나선 동생 카르멘이 모두 얼굴이 같아 상대방선수를 당황케한다。

베아트리스는 스위스에서는 축구나 스키가 더 인기가 있지만 자신은 탁구가 마음에 들어 14살때부터 탁구장에 드나들었다고。

서울오픈 탁구落穗

個人단식 對陣수정

○…대회본부는 27일 당초작성되었던 남녀 개인단식대진을 대폭 수정, 새로운 대진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대회본부는 주리·미팅을 통해 대진을 확정지었으나 한발늦게 새로운 세계랭킹이 발표되는 바람에 일부 참가선수들로부터 시드배정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당초 남자단식에서도 지난대회 1·2위 선수가 모두 불참、3위인 金浣을 시드1번으로 朴利熙를 시드2번으로 배정했었으나 스웨덴의 아펠그렌이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획득、세계 랭킹4위로부상함에따라 시드의 재배정이 불가피하게 된것。

새 대진에서는 아펠그렌이 1번·朴利熙가 2번·스웨덴의 발트너가 3번·린트가 4위로 시드를 받았다。

李체육 팔代表환담

○…李源京 체육부장관은 27일 서울오픈 국제탁구대회에 팔레스타인 대표로 참가한 알·루르크(국제탁구연맹이사, 아시아탁구연합부회장)씨와 압둘라·하산 바레인협회 전무이사의 예방을받고 세계탁구의 흐름과 한국 탁구발전에 관해 논의했다。이자리에서 루르크씨는 서울오픈 탁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있으며 한국의 발전에 큰감명을받았다고밝혔다。

접영百m 1分壁돌파

峨山旗수영

신예 方駿榮 59초71 기염

金昑希·崔允庭도 한국新

한국여자접영 1인자인 金昑希(상명여고)가 한국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27일 잠실 실내수영장서 개막된제2회 峨山旗쟁탈 전국수영대회 여고접영 2백m서 金昑希는 2분18초49를 마크, 종전 한국기록 2분19초41을 0·92초 단축했다。작년에 2분22초66의 한국기록을 갖고 있던 金昑希는 금년들어 4초에 가까운 기록단축을 보였으나 78년 방콕 아시안게임서 日本의 하쓰다가 세운 아시안·게임기록(2분15초79)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金昑希는 접영 1백m서도 1분05초51로 한국기록을 보유하고있다。

한편 여고 배영1백m 예선서 崔允庭(상명여고)은 1분06초01로, 종전 자신의 한국기록 1분06초30을 0·29초를단축하고한국신기록을수립했다。이날현재한국신기록 3개, 대회신기록 31개가수립되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망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고부 접영 1백m서 신예方駿榮(경기고)은 59초71을 마크, 77년 趙五連이 세운1분0초02를0·31초단축하고한국신기록을세웠다。

프로野球 첫沒收게임

MBC、對三星戰서 主審명령 不服

프로야구 개막이래 처음으로 게임을 몰수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26일밤 大邱 시민운동장서 벌어진 三星 라이온즈와 MBC靑龍과의 경기서 MBC가 주심의 퇴장 명령에 불복, 20여분간 경기를거부하다 주심에 의해 몰수게임패를 당했다。

사고는 4회말 5—2로리드하던 三星 공격때 일어났다。1死주자 1、2루의 득점찬스서 三星 3번 鄭鉉發이 유격수앞 땅볼을 때려 병살타로 처리 되면서 비롯됐다。2루로 뛰던 三星裵大雄이 병살을막기위해 MBC2루수 金仁植의 다리를걸고넘어졌고 金은 일어나면서 裵의 얼굴을때려 시비가 벌어졌으나 곧 화해를 했다。

그러나 金東昴주심은 폭행을 한 金仁植에게 퇴장을 명령, 사태가 악화 됐다。MBC 白仁天감독은 고의적으로 반칙을한 裵大雄은 처벌하지 않고 金仁植만을 퇴장시키는 것은부당하다고항의, MBC는몰수게임패(9—0)를당했다。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 규정에 의하면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우 심판판정에 불복한 팀과 관계선수에 대해 벌금등 징계를 하게되어있다。

한국、泰도격파

방글라데시蹴球

【다카(방글라데시) 26日 聯合】방글라데시대통령컵축구대회에 출전한 建國大팀은 26일다카경기장에서속개된泰國과의 대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말레이지아는 中共을 1—0으로 물리쳤다。

文泰鎭 2防戰

오늘 洪慶洙와

프로복싱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주니어·라이트급챔피언 文泰鎭(26)은 28일 하오 문화체육관에서 동급1위 洪慶洙와 타이틀 2차 방어전을 갖는다。20승(10KO) 1무1패의 文泰鎭과 洪慶洙의 대전은지명방어전。

OPBF페더급 챔피언 柳煥吉(20)도 29일 하오 문화체육관에서 타이틀 3차방어전을 벌인다。18승(8KO) 3무1패를 기록하고있는 柳煥吉의 상대는 필리핀의 다비노·이노시안。

龍山·徽文 결선에

쌍룡기농구

崇義、淑明에 半골승리

제18회 쌍룡기 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 4일째경기가 27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남고부서 龍山高와 徽文高, 여고부서 崇義女高와 東洲女商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날 남고 B조서 龍山高는 光新商高를 83—62로 제압, 같은 2승의 徽文高와함께 결선진출이 확정되었다。

◇제4일전적

▲남고A조
경복고(2승1패) 56 (34—32, 22—20) 52 송도고교(2승1패)

▲동B조
용산고(2승) 83 (23—30, 60—32) 62 광신상고(1승2패)

▲동C조
배재고(2승) 69 (35—26, 34—29) 55 홍대부고(2패)

▲여고A조
숭의여고(1승) 52 (30—30, 22—21) 51 숙명여고(2패)

▲동C조
수원여고(2승) 62 (20—14, 42—20) 34 인성여고(3패)

▲동D조
수원삼일(1승1패) 68 (36—19, 32—16) 35 풍기고교(2패)

앞으로 40여일…金成南 강도높은 訓鍊

"도까시끼 내가 잡겠다"

12㎞ 로드웍으로 日課 시작

스피드·스태미너 強補에 주력

"敵地싸움… KO로 결판낸다"

◇10월10일 세계타이틀에 도전하는 WBA플라이급1위 金成南。

金成南(22)은 한(恨)이 많은 복서다。부모도 없다。한 친 형제도 없다。光州에서 상업을 하는 사촌형 김형기씨(29)만이 유일한 핏줄이다。

가난과 외로움을 잊기위해 복싱글러브를 끼었다。76년 光州체육관에서 아마복서로 출발했으나 3라운드로는 직성이 풀리지않아 2년뒤프로로전향했다。

프로전적 23전 20승(12KO) 3패로 WBA 플라이급 1위에 올라있는 金은 오는10월10일 東京에서 동급 챔피언인 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21)에게 도전한다。

金成南은 남은 40여일에 세계챔피언의 꿈을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다。서울上道2洞 徐順鍾매니저 집에 기거하고 있는 金의 하루는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 盤浦일대를 반환점으로 하는 12㎞ 로드웍이 일과의 첫 시작이다。이 로드웍에는 姜俊鎬사범이 자전거로 따라붙어 페이스를 조절해 준다。

中央大에서 유연체조등으로 몸을 풀고 고기·빵·우유등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다。

하오 3시부터는 延禧洞에 있는 해태체육관에서 2시간동안 강도높은 훈련을 쌓는다。

챔피언 도까시끼는 매우 빠른 선수다。치고 빠지는 기술이 뛰어나며 세계챔피언이 된후 일취월장하고 있다。그래서 스피드를 키우고 스태미너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있다。도까시끼의 경기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도 입수、충분한 대비책을 쌓고 있다。도까시끼의 복부에 펀치를 자주 적중시켜 스피드를 죽여놓고 맞받아쳐 승부를 가린다는게金의기본전략이다。『찬스를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입술을 깨문다。

다음주부터는 徐매니저도 직접 金의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이렇게되면 趙永晧사범까지 모두 3명이 金을 다듬고 훈련시키게 된다。

金은 KO율 50%로 경량급답지않은 강한 주먹을 갖고있다。반면 도까시끼는 18전 16승(3KO) 1무1패로 펀치력에서는 金에게 훨씬 뒤진다。

대전장소가 東京이니만큼 판정으로 챔피언타이틀을 따오기는 어렵다。KO로 승부를 판가름낼계획이다。【金仁奎기자】

스포츠短信

◆八峰컨트리 18홀로 增設

◆…八峰골프컨트리(全北 益山郡八峰面소재)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주식회사 쌍방울(사장 李義範)은 9홀증설공사에 착수, 내년3월 18홀의 정규코스를 완공시킬 예정이다。1차 회원모집은 4백명으로 9월25일까지 접수。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01>

미리 온 아이④

오죽이 보기에도 아기는 너무 작았다。아기는 그녀가 꿈속에서 또는 대낮의 환각속에서 수없이 본, 두팔벌려 달려오던 그 씩씩한 아이하곤 얼토당토않았다。그렇다고 아기에게서 일환이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을것 같지도 않았다。

아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하고도 안닮겠다는 듯이 고집스러워보였다。가까스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아기의 이런 완강한 고집이 아기를 더욱 괴롭스럽게 보이게 했다。

『그 [illegible]들이는 잘 [illegible] 있나요?』

『그럼,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데 되려 반 형제보다 더 크고 무변한 걸』

『어떠하면 그렇게 기를수 있을까요?』

『지금[illegible]은 며칠만 날짜를 채워도 기계에다 넣고 유난[illegible] 그때만해도 어디 그런게 그렇게 흔했어야말이지。다 돼 나온 애보다 몇배 고수련이나 잘 해주고, 재명이나 잘 타고났기를 빌밖에』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illegible]은 여자가 아기를 받아준것보다 그 아이가 달수를 못채워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준게 몇배더 고마왔다。

그녀는 아기가 미리 올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던가。꿈속에서도, 대낮에 환각속에서도 아기는 [illegible] 속도로 달려왔었다。「안돼」 달려오는 아기의 속도에 제동을 가하려고 이렇게 고함을 치거나 애걸을 하다가 그런 꿈에서 깨어나곤 했었다。그래도 미래의 아기가 달려오는 꿈은 길몽이 아니고 언제나 악몽이었다。

『왜 이 아이도 날수를 못채운것 같소?』

『그러문요, 보면 모르세요』

오목이의 터무니없이 자신있는 단정에 [illegible]은 여자가 되려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illegible]은 여자는 천국밥까지 끓여주고 올라갔다。

마침내 아기와단둘이만 있게 되었다。수많은 날을 단 둘이 있었건만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따로따로의 인간으로 단둘이 있어보긴 처음이었다。희열인지 비탄인지모를 격정이 그녀를 흔들었다。그녀는 아기의 발딱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겁부터 지칠 무력하게 흐느꼈다。그녀는 온몸으로 울기시작했다。

아기야, 왜 미리 왔니? 이 [illegible]같은 집, 이 못난 에미에게 뭐가 좋다고 미리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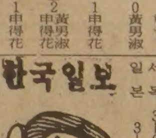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아기의 몸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손가락 발가락의 수효는 맞니? 귀는 잘생겼나? [illegible] 성한가? 누굴 닮았나? 고추는 [illegible] 그런걸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아기가 미리 태어났다고 믿기위해 [illegible] 새싹같은 손, 배배 [illegible] 얼굴은 모다 그 아이가 [illegible] 미리 태어난 아이라는 걸 [illegible] 아이의 키는 그녀가 시산 규격[illegible] 신생아 [illegible] 나올만큼 훤칠했다。피하지방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illegible] 아기의 훤칠한 키는 너무 애닯고도 불길했다。

아기가 가냘프게 [illegible] 소리로 울었다。그 다부지지 못한 울음소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아기의 작은 얼굴이 엄마로 구겨졌다。

아기가 미리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오목이에겐 예기치 못한 구원이었다。

한국일보



533·2361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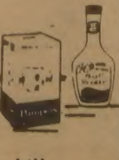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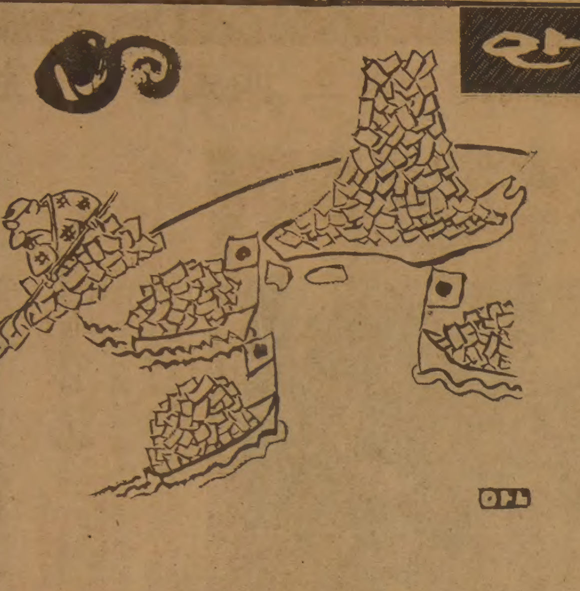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당 호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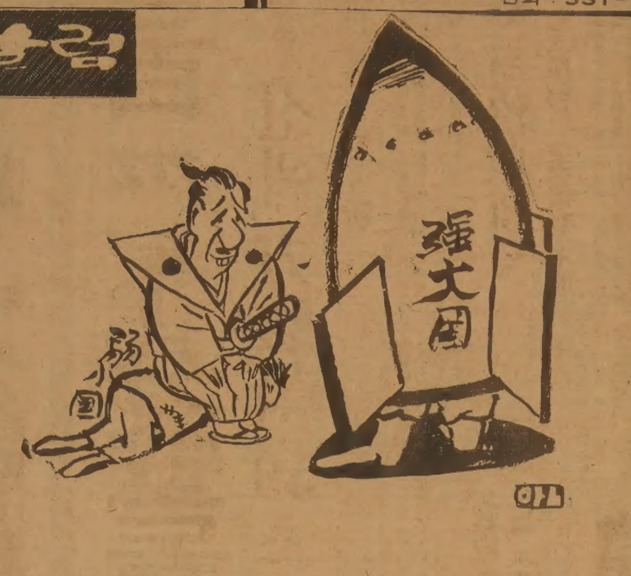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남의 사정은 알려고 하지 않는 독사종…



철저한 倭哭 歪曲 根性

승려의 결혼·肉食허용안

말썽만 일으킨뒤 백지化

종단제도 개혁안 始末

조계종단의 대처승 도입구상이 완전 백지화됐다. 지난 16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열린 종단개혁위원회는 승려제도를 수도승과 교화승으로 나누고 교화승에 한해 대처·육식의 허용을 검토했던 기획실의 당초 시안을 전면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취소소동에 앞서 기획실은 대처, 육식도입안을 강력 추진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명칭을 「한국불교진흥방안종합조사연구」라고 칭한 이 시안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 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대조류에 맞도록 불교를 현대화하기 위해 승단 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수도승(理判僧)과 교화승(事判僧)으로 2원화하고 교화승에 대한 결혼 허용여부와 새생활 자유화·두발문제·복장문제등을 발전적 연구과제로 삼을것을 제안했다.

"승단제도 수도자·교화자로 2元化필요성 두발·복장문제로 포교활성화에 지장있다"

계율개정 외에도 교육제도 개혁·불교의 사재정비·복식개혁·사찰관리의 공영화등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있는 이 「불교진흥종합조사연구」 시안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열릴 예정인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종단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넘겨지며 여기서 통과를 하면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된다.

시안은 승단제도 2원화의 필요성을 지금까지의 불교에는 수도자만 있었지 교화자의 의미는 없었다고 전제, 종래에는 수도승만이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도자가 곧 교화자이어야할 시대적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대처승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승려이면서도 사실상 결혼하여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이 많으나 이제까지의 일반적 의식구조로서는 이들 대처승을 승려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음성화하고 있으며 교화도 포교도 올바로 할 수 없는 파계승처럼 취급돼 불교 홍포(弘布)에 커다란 문젯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명칭을 교화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법사 혹은 교법사등 승자(僧字)가 붙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할 것인지는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식생활에 관해서는 청정비구이외의 승려품계(교화승등)에 대해서는 사찰 밖에서라면 육식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육식허용의 중요 배경은 공해가 없는 옛날과는 달리 산업사회에서의 도시·승단포교를 맡는 승려의 경우 순수 채식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두고 있다.

두발과 복장 문제는 높은 학력을 갖춘 고급 두뇌들이 불교에 귀의하거나 포교에 나서고 싶어도 두발과 복장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이들을 끌어들여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들 문제는 모두 공청회 개최와 연구협의회 구성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시안은 이밖에도 불교대중화를 위한 의식재정비와 계율개정, 종립수도원의 설치, 계

◇종단제도 개혁위원회의 「改革方案보고서」로 발칵 뒤집힌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개혁위원회의 토론 모습.

알기쉬운 경전편찬, 불교예술창단을 위한 음악·가곡·사찰건립의 현대화등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 기획실이 마련한 이 개혁은 종래 금지로 되어온 승려의 결혼과 육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나 하는 문제로 종단 안팎의 큰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장 鍾夏스님은 『이 개혁안은 종단 기획실이 마련한 시안에 불과한

"있을수 있는일" "50년대로 後退" 찬반

것으로, 이 안이 정식으로 종단차원에서 검토될 대상이 되려면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개혁안이 종단의 기획실 실무자선에서 불교진흥방안을 수집·정리하면서 종단 안팎에서 거론되어온 사항들을 종합한것에 불과하며, 결코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 시안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승려들과 신도들은 『제도개혁을 위해 근본 계율까지 고치려는 것은 큰 문제』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曹溪宗원로인 徐京保스님(一鵬禪院長)은 『육식허용등의 식생활개선은 몰라도 승려을 가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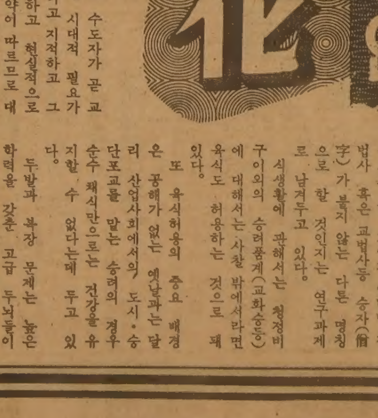
다시말해, 비구·대처로 나뉘어 계속돼온 불교 분규가 더 크게 재연될 우려가 있으며 유구한 불교전통과 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宋月珠전총무원장은 『제도개혁은 율장(律章)의 한도내에서 불교발전을 위해 연구되는것은 있을수있는 일』이라고 전제, 『현 제도상의 승려(수도승)와 일반신도를 이어주는 교직자제도의 도입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

한편 李圭範太古宗총무부장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전통에 비춰 대단한 개혁이지만 그렇게되면 曹溪·太古의 분규원인이 없어져 분규이전의 총불교로 돌아갈수 있을것』이라고 했고, 曹溪宗소속의 松韻스님(七寶寺총무)은 『포교활성화와 불교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단내의 중진 스님들은 총무원기획실이 만든 전기한 대처승(帶妻僧)제도 도입구상은 조계종의 생성배경인 정화이념(比丘)을 짓밟는 것이고 결국 이같은 제도개혁이 모색된다는것 자체가 50년대 불교계 정화이전으로 후퇴하는것을 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현재 조계종 승려중 수행이 부족해 계율을 어겼거나 처를 갖추고 있는 승려(속칭 隱妻僧)들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 불교의 근본계율 자체를 고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직은 물론 시안단계여서 어떤 결말이 날지 알수 없으나 이 시안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종단 내외의 분규도 클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海外화제

新婦 결혼지참금 높아지자 印度 총각납치 盛行

신부의 결혼지참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자 요즘 인도(印度)에서는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기 위한 총각납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동부 비하르지방을 비롯한 몇몇 지방에서는 나이찬 총각이 무방비상태로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는 영락없이 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것.

최근 2개월 1천2백여쌍 신랑감납치 결혼한 지방도

즉 신부측이 고용한 불량배들에게 납치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총각 납치극은 신부의 결혼지참금이 엄청나게 많아지자, 나이찬 딸을 둔 가난한 부모들이 지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불한당들을 고용, 아무데서나 사윗감을 납치해와 강제결혼을 시키고 있기때문에 생겨난 일.

인도의 결혼지참금은 신랑감이 하급공무원일지라도 2만5천루피(1백7만7천원) 정도 준비해야만 된다.

사윗감이 의사이거나 엔지니어 또는 지주출신등일 경우 돈이 엄청나게 늘어간다. 자동차와 고급자구등 혼수를 잔뜩 마련해야 될뿐아니라 지참금으로 10만루피(8백25만원)를 장만해야 딸을 시집 보낼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천5백루피(12만4천5백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때 딸을 시집보내기 위한 지참금은 엄청난 액수라는것을 알수있다.

그래서 기반이 단단한 중류가정일 경우도 딸 하나 치우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다.

3만~4만루피의 돈을 현찰로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딸을 시집보내야 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납치극이라도 벌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비하르주 날란다 지방에서만도 2개월동안 1천2백여쌍이 납치에 의한 강제결혼을 했고 다른 6개 지방에서는 한달동안 3천9백여쌍이 강제결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윗감 납치를 위해 고용된 불한당은 납치해온 사윗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수고비가 매겨지며 일단 고용된 불한당은 총각 납치는 물론 소동없이 결혼식이 치러질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와같은 총각납치에 의한 강제결혼이 가능한 것은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제도와 같은 전통과 옛 풍습에 얽매여 있어 큰 말썽이 일어나지 않기때문이라는것.

신도르(여자가 결혼하면 그 표시로 이마위에 그려 넣는 붉은점)에 대한 존경이 대단하여 피납당한 총각이나 그 가족들은 납치와 강제결혼을 일종의 숙명으로 생각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강제결혼을 완강히 거부하다가는 신변의 위협을 받게된다.

그래서 아들이 납치 되어 강제결혼을 당한쪽에서는 저항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라 한다.

사태가 이쯤되자 다 큰 아들을 둔 부모들은 함부로 자식을 집밖에 내보내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도 참석시키지 않는등 아들 숨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한 딸을 집밖에 잘 내보내지 않았던 옛 우리 풍습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인도에는 예부터 『왕이라도 딸이 셋이상이면 파산한다』는 속담이 있을정도로 결혼지참금이 신부측에 주는 부담은 실로 막대하다는것.

신부측 불량배 고용, 아무데서나 신랑납치
납치돼 결혼한 신랑측 고소않는 것도 상례

결혼지참금 외에도 자동차·냉장고·TV등 전기제품과 보석·가구류등의 혼수를 필요로하고있어 딸을 제대로 시집보내자면 우리 돈으로 2~3천만원이 든다는것.

이같은 지참금제도는 인도에서 법으로 금하고있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없어지기는 커녕 점점 더 극성을 떨고있어 딸가진 부모들을 울리고있는 실정. 최근에는 신랑측이 지참금의 액수와 가전제품·가구류등 혼수의 명세를 적어 신부측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다한다.

또 지참금의 일시불이 어려운 경우 결혼후 나눠서 갚는 할부제까지 등장했다는것.

지참금을 적게 가져온 신부는 시집식구들에게 온갖 수모와 구박을 받게된다.

이같은 구박은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때문에 신부측은 그대로 당하기만한다.

인도에서는 일단 결혼이 성립되었을 경우 이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강제결혼일 경우도 별탈없이 넘어가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강제결혼이 무난하게 넘어가는것만은 아니다.

강제결혼은 지참금은 낼 형편이 못돼 어쩔수없이 벌이게되는 일종의 폭력행위로 그 결과가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강제결혼을 한 신부는 일단 시집식구들의 구박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만 된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것도 각오해야 된다.

지참금없이 시집온 신부는 시집식구의 학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항의를 할수가 없다.

지참금을 못가지고 왔기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지내야만 된다.

이같은 신부에 대한 학대는 상류층이나 서민층 또는 지식층이든 무식층이든 차이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

시부모나 시집식구들에 합세하여 남편까지도 신부를 학대할 경우 나이어린 신부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한 학대와 구박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신부들도 부지기수.

시집식구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한다. 몇년전 뉴델리에서 시집식구들이 신부의 몸에 석유를 뿌려 타 죽게하고는 분신 자살로 가장한 사건도 있었다.

인도에서는 이와같은 지참금때문에 살해되는 신부가 연간 수백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납치되어 강제결혼을 하게된 총각측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만다. 신부측 입장을 동정하는 경찰측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지참금 문제로 신부가 살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신부측에서 고발을 해도 그 결과가 신원치 않게 처리된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고 마는것이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것은 경찰측이 성의있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지참금제도를 없애기위한 인도의 법은 이를 어길경우 6개월 징역이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참금문제를 둘러싸고 법에 호소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것.

또 여권 신장을 부르짖는 인도의 여성단체들이 이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기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또 남존여비의 사상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같은 여성천시의 풍조는 지참금때문에 비롯된것인지도 모른다.

아뭏든 인도의 처녀들은 괴롭기만 하다. 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처녀의 경우 불행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마련인것이다. 【뉴델리=AP】

◇결혼지참금이 없는 가난한 신부측은 총각을 납치해 강제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엄청난 액수의 결혼지참금 때문에 인도의 딸 가진 부모들은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海外걸작만화

"Then he yelled "Stop thief!" and I was dumb enough to stop."
『도둑놈아 게섰거라 하고 외치더군。그래서 두말않고 서버렸지。』

미스터 펀치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0회 퀴즈>

1		2	■	3		4
	■	5	6		■	
7	8	■		■	9	
■	10		■	11		■
12		■	13	■	14	15
	■	16		17	■	
18			■	19		

<힌 트>

■가로
1. 日帝의 쇠사슬에서 벗어난 날
3. 남북적회담 재개를 촉구한 대한적십자 총재
5. 결혼식 전에 갖는 의식
7. 소총에서 미사일까지
9. 장님들의 글자
10. 기상 이변으로 봄·여름에 주로 내리는것, 눈·비가 아님
11. 베토벤
12. 동물의 생태 표본의 하나
14. 술을 담는 그릇
16. 메줏가루, 고춧가루, 쌀가루등을 버무려 만든것
18. 88올림픽을 계기로 적극 유치하려는것
19. 말탄 병사

■세로
1. 恐水病
2. 아껴씀
3. 학문과 견식이 높음
4. 聖地를 巡拜하는 사람
6. 정신을 잃고 까무러침
8. 가물때 비오기를 비는 제사
9. 별로써 점치는 복술
12. 역사자료·예술품등 수집 진열하여 보이는 곳
13. 8월8일
15. 통신업무를 수행하는 병사
16. 단골 손님
17. 楚나라, 漢나라

<20회 正答은 13면에>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20회>

광	복	절	■	유	창	순
견	■	약	혼	식	■	례
병	기	■	절	■	점	자
■	우	박	■	악	성	■
박	제	■	입	■	술	통
물	■	고	추	장	■	신
관	광	객	■	기	마	병

「한국 名作」속의 숨은그림찾기

「홍 길 동傳」

조선왕조 세조때 홍씨 성을 가진 재상의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 총명함과 기지를 타고 났으나 서자라 하여 수모와 멸시속에서 자란다. 뜻한 바 있어 집을 떠나 방랑의 학문과 무예수업을 하던 중 도통한 도사를 만나 검술과 술법을 익힌 홍길동.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악한 자와 탐관오리들을 벌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그가 나타난 곳엔 악한 자들의 최후가, 선한 자들의 웃음이 펼쳐진다.

충청도 어느 고을 악질 사또를 벌한 홍길동은 몰려드는 포졸들을 피하여 구름을 불러 타고 하늘을 날아 피하는데, 아뿔싸, 그 구름이 그만 비구름이 되어 비를 뿌려 구름이 흩어드니 우리의 홍길동 위기일새 그랴. 허어… 하지만 우리의 홍길동이 아닌가. 구름이 없으면 바람을 타면 되지.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나비, 우리나라지도, 양말 한짝, 뱀, 눈사람, 주전자, 낙타, 펜촉, 낚시바늘, 낫, 화살표, 아령, 서양 담뱃대

구성·장태산

새로운 매니지먼트

금번 제가 동궁을 인수받게 되어교민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계속 저희 식당을 애용해 주시고, 배전의 성원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 기주올림

계절의 진미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동궁식당

1416 VICTORIA PK. AVE.

(빅토리아×에그링톤 SOUTH)

ORIENTAL CASTLE

☎757•6334

동궁식당

신문에 안난 現場

사건記者 수첩

「목욕탕 털이」 자매도둑과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증탕과 대중탕을 무대로 자매 도둑이 훔친 금품은 3천5백만원어치나 되고, 주택가 빈집의 대문열쇠를 따고 침입한 일당이 훔친 금품은 5천여만원상당. 주부들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목욕탕에서 자물쇠를 너무 믿는게 아닌가 싶다. 이번 주 「기자수첩」에는 서울 주택가의 뱀 출현 소동, 경북지방의 멧돼지떼 기습등 야생(野生) 출현에 놀라는 주민들표정도 메모됐다.

女湯 옷장만 8차례 턴 자매도둑 잡혀

■승려가 만취·폭행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대낮에 승복을 입은채 술에 취해 부녀자를 희롱하다 폭행까지 한 승려 崔載河씨 (63·仁川市남구도림동247·삼보사)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16일 낮12시반께 서울동대문구용두동234의1 청룡식당에서 동료 승려 2명과 함께 2홉들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신후 이 식당 종업원 金明分씨 (33·여)에게 「연애 한번 하자」고 추근대다 金씨가 듣지않고 거절하자 얼굴을 때려 상처 (전치1주)를 입혔다는 것이다.

崔승려는 경찰에서 『승려도 사람인 이상 수도할때를 제외하고는 술을 마실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과음탓이었다고 변명.

■주부상대 상습도박

▲서울청량리경찰서는 지난14일 가정주부들을 모아놓고 공굴리기 숫법으로 상습도박을 벌여온 李惠峯씨 (53·동대문구휘경동148의62)등 3명을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박계봉씨 (63)를 수배.

이들은 李씨집 안방에 가정주부 32명을 모아놓고 구멍이 뚫린 나무판위에 색구슬을 굴려 구슬이 구멍에 빠지는데 따라 1천~5천원씩을 걸게하는 속칭 공굴리기 도박을 14일새벽 2시까지 벌이다가 적발됐다.

주민신고를 받고 도박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李씨등도 처벌해야 겠지만 가정을 버리고 도박장에서 놀아난 주부들을 더욱 엄벌해야 한것』이라며 따끔한 한마디를 던졌다.

■한증탕옷장서 돈훔쳐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7일 金賢淑 (33·서울관악구봉천6동 장미아파트가동205) 金明淑 (27·〃봉천6동738의4)자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지난달24일 하오2시께 서울강남구서초동169의3 영동한증탕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카운터벽에 걸려있는 열쇠를 훔쳐 金모여인 (40·서울강남구서초동)의 옷장을 연다음 손지갑안에 들어있던 한일은행청제지점발행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등 3백5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혐의다. 이들 자매는 이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여자대중탕·한증탕등에 들어가 같은 숫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3천5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12일 롯데칠성 (강남구서초동566)판매원 姜錫春씨 (37·절도전과3범)、李湖周씨 (22·강동구풍납동199)、尹載旭씨 (29·상업·절도전과1범·종로구승인동181의16)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8일 상오7시께 회사사무실에서 훔쳐낸 출고증 2장을 창고계에 제출, 사이다 80상자, 쎄쎄주스 4백80상자등 모두 7백여만원어치의 청량음료를 빼내 회사소속 1·5톤 타이탄트럭을 이용, 시중에 팔아넘겼다는것이다.

■대낮住宅街 뱀소동

▲대낮 주택가에 잇따라 뱀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밤늦게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등 일대 소동을 벌였다.

지난10일 하오3시께 서울마포구하수동144의56 趙恩淑씨 (37)집 하수구에 길이 1m가량의 청색 뱀이 나타난것을 비롯, 4시께에는 같은 동네에서 鄭호정양(15·성산여중2년)이 골목길을 지나오다 담을 넘어가는 뱀을 발견했다는것.

또 하오6시께 서울마포구서교동411앞 골목길에서 길이 1·5m가량의 비단구렁이가 기어가는것을 주민 10여명이 회초리로 때려잡았으며 하오7시30분께는 하수동144 앞길에서 주민 趙영삼씨 (26)가 길이 75㎝가량의 꽃뱀을 사로잡았다.

인근 주민들은 이같이 뱀소동이 벌어지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방문을 꼭닫고 주변에 담배가루를 뿌리는등 뱀의 접근을 막으려고 밤새워 지켰는데, 서교동·하수동일대 주택가에는 뱀집이없는것으로 미뤄 어느주민이 보약으로 쓰려고 뱀을 산채로 사왔다가 놓친것으로 주민들은 추측했다.

한국일보

■고시합격 사칭 사기행각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13일 사법고시 합격자라고 속이고 처녀에게 접근, 결혼을빙자하고 돈까지 뜯어낸 鄭相奎씨 (26·전과3범·강서구목동67의20)를 혼인빙자간음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혼자인 鄭씨는 지난해6월 서울D여고 교환수인 金모양 (22)에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자고 꾀어 정을 통하고 『고시공부하느라 위장병이 생겨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0만원을 뜯어낸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을 받아갔다는것.

金양은 鄭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鄭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17일 安圭善씨 (29·서울마포구도화동363의23) 姜桂遠씨 (29·서울영등포구당산동 시범아파트8동302호)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崔英씨 (30·서울마포구신공덕동)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出庫證 빼내 사이다등 80箱子 쓱삭해

엉터리 간염치료제 특효약 팔아먹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30일 하오2시께 서울은평구구산동213의9 김재환씨 (25)집대문 열쇠를 대형드라이버로 따고 침입, 장롱속에 있던 다이아반지등 귀금속 5백10만원어치를 훔친것을 비롯, 지난2월부터 지금까지 화곡동·후암동·구산동동 주택가를 무대로 18차례에 걸쳐 5천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쳐왔다는것.

동네친구인 이들은 토롱탕 선전 팸플리트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며 대낮에 고급주택만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주문을 받는척하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경우 대문을 따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범행했다는것.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16일 朴喜鎭씨 (56·무직·서울 용산구 이태원동292)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3가K한의원에서 한약재 40만원어치를 구입, 자신이 엉터리 간염및 간경화증치료제를 만든다음 지난5월7일 申영숙씨 (36·여·경기안성군안성읍봉산동98)에게 「이약은 간염특효약」이라고 속여 3백50여만원을 받고 판것을 비롯, 지금까지 같은 숫법으로 28명의 간염및 간경화증환자에게 4백80여만원어치의 엉터리한약을 팔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사건記者 수첩

아파트건설 반대한 住民에 경찰이 폭행

洞長, 주민등록 말소해 놓곤 과태료내라

■말썽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 1년이나 별일없이 살아온 한 시민이 뒤늦게 자신의 주민등록이 동장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다 동사무소에서 오히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말썽.

서울·성북구성북1동 金모씨 (30·회사원)는 지난9일 이사를 하기위해 퇴거신고를 하려 성북1동사무소에 갔다가 주민등록이 지난달 20일자로 동장직권에 의해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동 직원은 『정확한 전입신고를 하지않은데 대한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알려 주더라는것.

金씨는 『작년7월 현재 살고있는 李모씨 집에 전세를 얻어 이사온 후 주인 李씨가 가르쳐 주는대로 주소를 기재, 통·반장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후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은것은 물론 자녀의 출생신고、주민세납부등 별탈없이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동사무소측은 기재한 주소가 틀린다는 이유로 직권말소한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고 항의.

이에 대해 동직원은 『원칙적으로 반장·통장을 거쳐 동사무소에서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주민이 새로 이사올 경우 보통 확인없이 전입신고를 받고있는것이 현실』이라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이사온 주민이 주소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됐으므로 잘못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만은 물어야 될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이 주민에 행패

▲12일상오10시께 서울강남구대치동610 국제종합건설 사원용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강남경찰서 정보과소속 M순경 (38)등 경찰관4명이 아파트 신축에 항의하며 몰려나온 이웃 청실아파트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는등 행패를 부렸다.

이날 경찰관들은 이아파트 신축공사장 바로옆 청실아파트주민 1백여명이 공사를 반대하며 몰려나와 국제종합건설측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있는 광경을 촬영하던중、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양산을 빼앗아 휘두르는등 폭행을 가해 주민 金德惠씨 (49·청실아파트17동601호)의 경우 전치10일의 상처를 입었다.

M순경등은 아파트주민들에게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는등 위협과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제건설측이 아파트앞 학교부지를 매입, 사원용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대해 공사중 심한 소음과 먼지가 날것을 우려, 항의소동을 벌였다.

이에대해 강남경찰서측은 『이들 경찰관들이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했을뿐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다.

▲聞慶郡등 경북 북부지방에 산돼지·꿩·오소리등 조수류가 몰려들어 수확직전의 땅콩·고구마·고추등 밭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

14일 聞慶郡에 따르면 지난달20일부터 문경군산북면이곡리 남상진씨 (48)등 이마을 7개농가의 땅콩밭4천2백여평과 호계면 문천리 고구마밭 5천여평에 산돼지떼가 몰려들어 마구 파헤치는 바람에 1천4백여평의 땅콩과 3천여평의 고구마를 수확할수 없게 됐다는것.

또 문경군동로면간송리일대의 고추밭 5천8백여평도 꿩떼의 습격으로 못쓰게 돼 고추를 수확할수 없게됐다고한다.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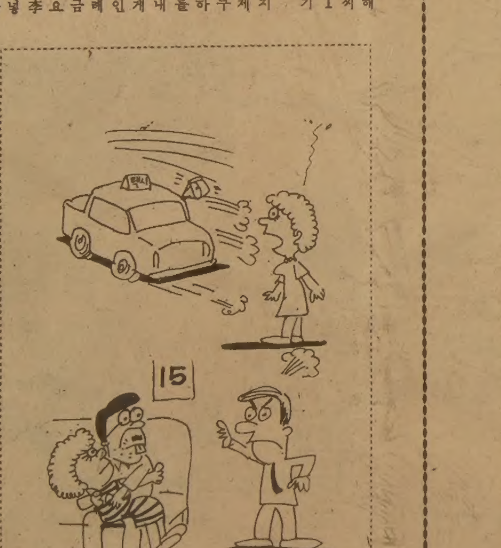
돈에 눈 어두운 外販員 친구 유인 독살

▲釜山 동래경찰서는 지난14일 돈에 눈이 어두워 외판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친구를 자기집으로 유인해 독살, 암매장한 鄭辰萬씨 (42·부산시영도구청학동140)를 살인및 시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8일 낮12시께 동래구거제2동1260의15에서 야쿠르트 거제대리점을 경영하는 친구 李壬洙씨 (41)를 전화로 자기집까지 불러내 극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해 살해한뒤 李씨의 부인 朴모여인 (38)에게 10차례나 협박전화를 걸어 현금 7백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숨진 李씨를 대형 전축박스에 넣어 용달차로 경남김해군녹산면송정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이다.

▲지난 17일밤11시50분께 서울강남구서초동225의4 앞길에서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운전사가 승객 최원인여인 (42·식당업·강남구서초동 금잔디아파트A동12호)에게 「차가 고장났다」며 내리게 한뒤 현금과 수표등 22만원이 든 崔여인의 핸드백을 싣고 달아났다.

경찰은 35세가량의 더벅머리를 한 이 운전사를 수배중이다.



■복직거절하자 방화

▲지난 17일밤10시50분께 서울성동구중곡동125의12 중국집 신천장 (주인 권춘희·30·여)에서 이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이중선씨(24·주거부정)가 주인 權씨에게 복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방안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뒤 달아났다.

이틀전 이 중국집을 그만둔 李씨는 이날 밤늦게 權씨를 찾아와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점뒤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것.

가짜 大學生이 여대생 고고홀로 유인 금반지 가로채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짜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처녀의 금반지를 가로채 달아난 정순열씨(25·부산시 남구 문현동460)를 사문서변조및 동행사, 사기등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14일 밤 10시께 시내 크라운호텔 앞에서 길을 묻는 金모양 (20·부산진구 범천동)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접근, 『나는 서울의 K대 학생이다』며, 며칠전 길에서 주워 자신의 사진을 붙인 학생증을 보이고 대학생 행세를 한뒤 金양을 고고홀로 유인했다는 것.

鄭씨는 고고홀에서 金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춘뒤 金양이 끼고있던 금반지 (3만5천원상당)를 보자며 그대로 도망 쳤다고.

술값과 금반지까지 사취당한 金양은 어갈은 억울한 사실을 호소、경찰은 이튿날 또다시 고고홀에 나타난 鄭씨를 붙잡았다.

■혼줄난 日관광객

▲제37주년 광복절이던 지난15일 열차안에서 동행한 한국인여성2명과 함께 농도짙은 추태를 보이던 일본관광객 2명이 주위의 승객들에게 혼줄이 났다.

15일상오 慶州를 떠나 서울로 오던 새마을특급열차가 水原을 지날 무렵인 이날하오1시반께 특호실에 탔던 일본인 2명이 동반한 한국여성 2명을 각자의 무릎에 앉히는등 추태를 연출.

옆자리에 앉아있던 朴모씨 (45·회사원·서울은평구갈현동16)등 30여명의 승객들은 꼴을 보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느냐』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쓸개마저 빼고 사느냐』고 일본인과 한국여성을 크게 꾸짖었다는 것.

객차안의 분위기를 깨달은 일본관광객2명은 재빨리 사과했으며 『왜 남의일에 간섭이 심하냐』고 대들던 한국여성 2명도 잠시후에는 『지나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정리·姜升遠>

구독신청
533-2361

海外토픽

英 寺院연못에 동전 도둑

영국의 바트대사원에 최근 도둑이 들어 『소원을 비는 연못』의 물을 뺀다음 그곳에 쌓여있던 동전들을 몽땅 건져갔다고.

로마시대에 판 길이 1·2m의 이연못에는 매년 65만의 관광객이 찾아와 동전을 던지면서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는데 이날 밤손님들은 사원담을 넘어들어와 연못배수구의 마개를 열어놓고 6시간동안 물이빠지기를 기다렸다가 3백파운드 (5백10달러)상당의 동전을 건져갔다고 경찰이 밝혔다. [AP]

소녀 귀속 파리 3백마리

10세가량된 한 인도소녀의 오른쪽 귀에서 무려 3백마리나 되는 파리를 제거했다고.

PTI통신에 따르면 한 국립의과대학병원에서 파리의 서식처가 되고있던 이소녀의 귀에서 80마리나 되는 파리를 주사기로 뽑아냈다는것.

병원의 한 대변인은 2년전에도 이 소녀의 귀에서 2백여마리의 파리를 제거했었다면서 현재 소녀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UPI]

화장실에 8일동안 갇혀

파리의 한아파트에 침입한 강도가 66세의 노파와 94세된 노파의 어머니등 두노인을 아파트화장실에 감금해놓고 금품을 털어달아났는데 이두 노파는 8일만에야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8일동안 화장실의 수도물로만 연명한 두노파는 의사의 진찰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고.

두노파는 화장실에 갇힌후 『사람살려』고 울부짖었으나 이웃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거의 바캉스를 떠나고 없어 뒤늦게 찾아온 친척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다. [AFP]

뉴욕 하수도서 악어 생포

뉴욕시 하수시설에 악어가 살고있다는 기사들이 나온지 몇년후 실지로 작은 악어 1마리가 뉴욕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시청당국을 경악케 했다고.

뉴욕시의 급수원이 되는 켄시코저수지에서 악어를 보았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 환경보호국의 한 관리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헛소문으로 간주했으나 수색작업에 나섰던 시청 직원들이 바위에 앉아있다 물속으로 도망쳐 버리는 악어를 실지로 목격, 확인하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져버렸다는 것. 후에 악어는 파충류 전문가와 악어잡이에 경험있는 한 교수에게 생포되어 동물원으로 넘겨졌다. [AP]

波 음악가 死後에 배우로

배우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폴란드태생의 한 음악가가 저승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알드레·차이코프스키란 이름의 이 피아니스트는 지난 6월 46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런던의 로얄·셰익스피어극단에 대해 앞으로 공연때 자신의 두개골을 묘지장면의 소품으로 사용해 줄 것을 바란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극단측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

극단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두개골을 방부처리하고 있다고. [AP]

讀者 페이지

지금 웃는중 落書

<지난 여름이 유죄>

고집이 센 그녀는 바다로 떠났고 체력이 빈약한 나는 산으로 피서를 갔지만…그건 곧 이별이었습니다.

—노총각—

이○재 (10215·KINGSLEY D R#6 L. A. CA. 90006 U. S. A.)

<해도 너무했다>

미국국민학교의 여름방학식날 어느 교사는 『어린이 여러분. 방학동안 바다나 산에서 몸을 까맣게 태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납시다』고 하자 한 흑인학생이 돌아서며 『걱정 이 이상 어떻게 더 검둥이가 되란 말이야』하며 중얼.

甘草 (70대의 이용찬씨·미국VA BEACH서)

<붙어있는 두마리의 파리를 한꺼번에 잡은 노총각이 하는 말은…>

미안하다.

天下大將軍 (十月文友會)

★<판결문>

요즘의 정세에 따라 피고의 죄명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주거지출죄」여서 무죄를 선고한다.

—日本법정—

金應明 (서울 東大門區 中和洞 304의8)

<한국실직자와 미국실직자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한달만에 마누라한테 탄로나지만 미국에서는 한주일만에 탄로난다.

노재근 (미국캘리포니아에서)

<나도 남자다>

마누라가 바캉스가자고 졸라댔지만 내년에 해외로 가자며 미뤘다.

잠실에서 태은이

<우리도 한마디>

코미디작가는 우리의 작품을 제발 사용하지 말라. —나서인일동—

피카소황소 (성동구화양동167의1 민속화실)

<삯바느질로 먹고 사는 직업>

외과의사

김성철 (十月文友會)

<차 이>

부자들이 찾는것은 아이스박스。서민들이 찾는것은 라이스박스。

원철연

<자살사건>

단일 살인 사건으로 가장 손쉽이 잡았는 범죄。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어느모임에서 방금 만난사람에게 차후연락을 취하고 싶을때 제대로 얻은 말이 안나온다. 「어떻게하면 선생님과 연락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get in touch with~라는 숙어를 사용하면된다.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또한 contact or reach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

How can I contact you?

또한 헤어질때는 「앞으로 서로연락합시다」 라고 할수가 있는데 이때는 Let's keep in touch. 라고 하면된다.

A :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B : You can reach me by calling 878-1700.
A : Are you at this number all the time?
B : No. You can reach me at 262-7300 after five.
A : Thank you.
B : You're welcome.
A :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하면 연락할수 있나요?
B : 878—1700으로 전화하시면 제게 연락됩니다.
A : 이 번호로 항상 연락이되나요?
B : 아니오。다섯시 이후에는 262-73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A : 감사합니다。
B : 천만에요。
A : How can I get in touch with Joe?
B : Did you call his home?
A : Yes, I did. There was no answer.
B : He's probably at his office.
A : Do you have his number?
B : Hold on a minute. I'll have to look for it.
A : 어떻게 해야 조와 연락이 되나요?
B : 집으로 전화해 봤어요?
A : 연락해 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안받던데요。
B : 아마 사무실에 있을겁니다。
A :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아세요?
B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찾아봐야겠어요。
A : Where is Bill?
B :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A : Is there any way I can reach him? It's urgent.
B : Well, you can try his office.
A : Do you have his number?
B : I have it in my directory, but I didn't bring it with me.
A : 빌이 어디있죠?
B : 정말모르겠는데요。
A :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아주급한 일입니다。
B : 글쎄요。그의 사무실로 해보시죠。
A :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B : 제 전화부에 적혀있는데 안가져왔읍니다。
get in touch with : ~와 연락을취하다。
There was no answer. 아무도 전화를 안받는다。
Hold on a moment.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미스터 펑치 吉松漁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8

連載 소설

스승이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존경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스승은 값진 유산을 남길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백년대계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엔 존경할 만한 스승이 많다. 그러나 존경받을 수 없는 스승이 더 많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다. 사랑의 매질이란 미명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스승은 선생이 아니며 월급액수만큼만 선생노릇하려는 사기꾼들이 선생인 수없는 것이다. 또 학생들을 현금확보의 매개체로 생각하는 이른바 봉투에 눈이 어두운 수많은 선생들은 결코 선생이 아닌것이다.

그런 선생들은 교육을 빙자한 교육상인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대부분은 학부모였거나 학부모 노릇을 하고 있으며, 어린애들도 세월이 가면 학부모가 될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음으로나 양으로나 봉투나 봉투와 유사한 물건을 선생에게 바쳐본 사람들일 것이다.

전에는 의사나 변호사·세무서원들을 허가 낸 도둑놈이라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선생을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한다.

의사나 변호사나 세무서원 따위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생이 허가낸 도둑놈으로 하락한다는 건 가장 끔찍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지난줄거리

홍찬은 두번의 면허시험을 치르고서야 면허증을 따내는 고역을 치렀다. 멋장이 경찰관을 오랜만에 만난 홍찬은 기분이 좋았다. 집에 오자 온주누나가 몹시 속상한 애기를 했다. 세계문화협의회란 간판을 걸고 상장을 마구 남발하는 풍토와 선생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가답한 척면피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학교선생들의 치졸한 행위가 나열된다.

『누나, 내가 해결할테니까 그동안 억울했던 일 있으면 죄다 털어놔봐.』

온주 누나는 손을 내저었다.

『예가…그냥 있어.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어떻게 선생님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래.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속상해도 참고 지내자는 그 생각 때문에 봉투 주는게 습관이 됐고 사회문제로 번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음성적으로 학부모와 선생 사이의 돈거래와 흥정봉투가 난무하는 거란 말야.』

선생들은 펄쩍 뛸 것이다. 증거를 대라느니, 어찌 선생으로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면서 악을 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걸 어쩌랴. 나도 그것만은 거짓이기를 빌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만두자.』

온주 누나는 괜히 말했다 싶었는지 발뺌을 하려고 했다.

『그게 자식 키우는 부모의 약점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 내가 이담에 학부모가 돼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없어. 어른들 말처럼 자식하고 연관된 문제는 장선있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대잖아. 그러나 자식 키우는 게 약점이라고 해서 선생들과, 음성적인 봉투거래가 지속된다고 생각해봐. 배우는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끔찍한 불신의 뿌리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냅둬.』

온주누나는 딱 잘라 말했다. 내성깔을 알기 때문에 일이 크게 번지기 전에 덮어두려는 속셈인것같았다.

『알았어. 그러나 누나만은 제발자식 키우는게, 자식 가르치는게 약점이 안됐으면 좋겠어. 자식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봉투를 통해 득을 보려는건 분명하게 다른거야. 누난 제발 선생을 치마폭에 싸들고 노는 치사한 여편네가 되지마.』

나는 덮어두는 체하고 나왔다. 온주누나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거라는 걸 알았다.

반장 다툼이나 동수나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부정따위를 통해 멋진 사모님이 되고싶은 여편네들의 봉투바람만은 사라져야 할것이다. 더구나 그런 돈을 받아먹는 뻔뻔스러운 선생들이 이땅에 음흉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땅의 장래가 의심스러운것이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봉투를 요구하는 선생들이 많아졌다는건 그동안 슬하게 곤두박질친 사도가 바닥으로 기어다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선생만은 제발 놔두세요. 이땅의 스승상이 무너지면 누굴믿고 살란 말입니까.

선생가운데 가장 봉투를 밝힌다고 소문난 강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란이 삼촌되는 사람입니다. 영란이 아버지께서 뭣좀 전해드리라고해서 왔읍니다. 학교앞 유정다방에서 기다리겠읍니다.』

가르쳐줘 고맙다는 인사와 봉투내미는 건 다른거야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강선생의 카랑카랑하고 신경질적인 음성이 경쾌하게 들렸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나갈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책갈피속에 든 하얀 사각봉투를 의미있게 쳐다보았다. 그봉투속엔 종이돈, 천원짜리 한장이 두꺼운 편지지와 함께 들어있었다. 천원 한장 던져주기도 아까운 여자지만 속을 떠보기 위해선 할수 없었다.

10분도 채 되지않아 강선생은 퇴근 차림으로 들어섰다. 옷매무새는 수수해 보였으나 눈꼬리와 날카롭게 생긴 하중이 빠르게 생긴것이 감정적으로 삶였다.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테가 큰 안경이었다. 얼핏 보기엔 퍽 이지적인 느낌도 들었다.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형님이 바빠서서 제가 대신 선생님을 찾아뵈었읍니다. 우리 영란이가 어떤지도 알고 싶고….』

강선생은 생글생글 웃었다. 들어설때의 표정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영란인 퍽 착해요. 공부를 좀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만요. 부모님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가봐요. 영란이네 식구 빈 게 오늘 첨에요. 몇번 상의할 일 있다고 오시라고 했지만 깜깜무소식였어요. 부모님이 너무 하시다 싶었어요. 솔직하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형님이나 형수께서워낙 주변이 없으시고…빈손으로 오시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뵙는겁니다.

영란이도 다른 엄마 아빠는 다찾아와 인사하는데 왜 안가느냐고해볼 쓰더군요. 어린게 오죽하면 그러겠읍니까.』

『영란이가 똑똑하거든요. 다른 말은 안했어요?』

『어린게 영악스러워요. 제 저금통을 찢어놓고 봉투에 려 담더니께 발 엄마가 학교에 좀 가보라고, 선생님 좀 찾아가보라고울더군요.』

『차암, 영란이 걔가 좀 엉뚱한데가 있어요. 애는 착한데…』

강선생의 낯빛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테니 우리영란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게 대죄 진 건아니지만 저희들이 도리를 다 못해서 할말은 없읍니다. 이건 형님내외가 성의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나는 하얀 사각봉투를 내밀었다.

강선생은 재빨리 봉투를 받아 차락밀에갑추었다.

『이거, 이러시면 안되는데…어려우실테데….』

『저희들 성의라니까 그러세요. 넣어두세요. 적습니다.』

『영란이는 저도탄 잘하면, 다른애들한테 결코 안떨어질 애에요. 아시겠지만 머리는 좋거든요.』

강선생은 한참동안 영란이란 계집아이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봉투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바로 영란이의장점을 억지로 분석해 주는것 같았다.

강선생이 발행할 수 있는 영수증이란 그것뿐이었다. 영란이란 애가괜찮은 집 딸이거나 공부를 잘하는아이였다면 더 큰 영수증이 있었겠지만 영란이란 계집아이는 그 정도영수증밖에 받을 수 없는 애였다.

『잠깐 내려갔다 오겠읍니다. 뭐가 저다 드릴게 있는데 제차속에다놓고왔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강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방문을 밀고 나왔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다. 시원한 차값 두잔값과 담배 한갑값을 물어내야 할강선생의 표락서니를 지켜볼 십상이었다. 내가 넣어준 봉투를 열어보면 차값과 담배값 계산하기도 저온 액수와 혹독하게 쓴 편지 한통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몸을 부르르 떨겠지.

하나님, 그 속엔 이렇게 써놨읍니다. ─그만 봉투좀 밝혀라. 이 천하에더러운 돈벌레 계집아.─

나는 다방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간막이 뒤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다. 강선생은 자꾸 출입문쪽을 살펴보았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강선생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올때의 표정은 보통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잔인한 꼴을 목격한여인의 표정이라고 해야 옳았을 것 같았다.

화장실에 들어가 봉투를 뜯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행복감은 조금 길었을 것이다. 그래보았자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녀는 재빠른 걸음으로 카운터 헐을 빠져나갔다.

『여보세요!』

앙칼진 다방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강선생은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열었다. 나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강선생은 그녀의 일생 전체에서 가장 참담한 꼴을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생이라는 명칭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의 지나친 행동은 여태 묻히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걸린 이상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선생다운 선생으로서 농땡하는 이 여자의 행위를 사회는 그 동안 용인해 왔다. 용인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강선생의 눈빛엔 살기마저 느껴졌다. 나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입술을 달싹거렸다.

『이거 한 개 드시죠.』

나는 50원짜리 빨아먹는 얼음 과자를 내밀었다. 비닐속에 단물을 넣어 얼린 얼음을 그녀가 받을 리 없었다.

『맛있읍니다. 쪽쪽 빨아먹으면.』

내가 내미는것을 뿌리친 그녀는 앞서 걸었다.

『이봐요, 얼음 과자 좋아하잖아요. 철없는 애라면 당연히 이런거나 쪽쪽 빨아먹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래요?』

강선생의 목소리가 날 서는것 같았다.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야 이런거나 좋아하잖소? 자, 듭시다.』

나는 강제로 얼음 과자를 내밀었다.

『당신 누구에요?』

『당신하고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수밖에 없는 사내올시다.』

『소리칠거요. 물러서요!』

『뭐라고 소리치시려고 그러십니까? 학부모한테 봉투 뜯어먹고 살았다고 자술서 쓰시려면 한번 소리질러 보시지.』

『………。』

강선생은 더 빨리 걸었다.

『이봐, 강선생. 한번 소리 질러 보시라니깐 그래. 나는 선생을 빙자해 봉투속의 현금만 눈에 불 켜고 다닌 선생중의 선생이다. 이렇게 소리 치시라니깐.』

『저리 비켜요.』

강선생이 도망치듯 뛰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이봐, 강가선생. 그럼, 내가 소리쳐 드릴까.』

『왜 이러시는 거에요? 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에요. 선생한테 장난칠수 있어요?』

그녀는 내가 영란이란 계집아이와 어떤 연관이라도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때 선생님들은 정말 선생님다운 분들이었어요

『난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돈같은 걸 밝히고 성적을 조작하거나 국제문화협의회 같은 데도 돈 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농락하진 않았지요. 우리 때 선생님들은 정말 선생님다운 분들이었어요. 요즘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지요. 당신같이 개떡같은 선생이 늘어나서 병이지만.』

『정말 왜 이러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강선생이 턱을 세우고 대들 기세였다. 나는 웃어 주었다.

『그럼, 나도 흥정 좀 해봅시다. 잠깐 저리로 갑시다.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속삭이며 말합시다. 내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커서 말입디다.』

강선생은 두리번거리더니 주춤주춤 발을 옮겼다.

『여긴 당신네 학교 앞입니다. 떠들면 금새 불만하게 될 거요.』

『빨리 가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하고 앞장 섰다.

『이리 오시죠.』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순간 굳어졌다.

『누구시죠? 어디서 오셨죠?』

그럴 때의 강선생 표정은 너무나 순박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어서 타요.』

『누구?』

『타라니까 그래요.』

그녀는 힘없이 올라탔다. 조심하느라고 다리를 여미고 눈을 내려 깔았다.

『자, 이것부터 먹어요.』

그녀는 저항 없이 얼음 과자를 받았다.

『다 먹어야 애길 시작하겠소.』

그녀는 마지못해 얼음 과자를 깨물어 먹었다.

『그럼, 애길해 봅시다. 학부모한테 정기적으로 봉투를 받죠?』

『아네요. 가끔 보내는 분이 있지만…어쩔 수 없이 받아요. 정말에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독해서 쉽게 실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봐요, 강선생. 내가 당신 남편처럼 속없는 사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말하쇼.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수챗구멍에 박아버릴테니까 학교 똥통에다 박아버린다든가, 수 틀리게 나와보쇼. 당신 한달에 받는 봉투가 몇개나 되며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쇼.』

『별로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거니까? 어디서 오셨는데 이러세요?』

『너, 정말 이 따위로 해볼래?』

나는 엑셀러레이터를 힘주어밟았다.

『말할께요. 말할테니 내려주세요. 제발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나는 이를 앙다물고 차를 몰았다.

하나님, 선생아니라 선생 할애비라도 교육을 빙자한 사기꾼이면 수챗구멍에 박아버려도 괜찮겠죠? 차라리 치마 벗어들고 돈을 긁어모은 일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알 정도로 돈을 밝히고 성적을 조작해주고 반장선거전을 조작하는 일만은 그냥 둘 수 없잖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게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너무 하잖습니까.

으슥한 계곡까지 강선생을 끌고 올라갔다. 계속 빌고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주절거렸지만 귀마야 들지 않았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애들 가르쳐야 할 사람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안그럴테니 보내주세요.』

『너같은 년은 주리를 틀어놓아도 시원찮은 년이다. 한번 애기할 때 고분고분한년도 아니겠지만, 옳은 소리하는 말 무시하다가 네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선생님, 제발…』

『내가 네 선생이냐? 그럼, 너도 봉투좀 내놔봐라.』

『하란대로 다 할께요.』

『그럼, 옷 벗어라.』

『그건…』

『하란대로 다 한댔잖아, 이년아.』

『저…』

그녀는 충격을 받았는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옷을 벗고 치마를 끌어내렸다. 삼십대 여인의 풍요가 보였다.

『더러운 계집년 같으니라고. 그래 옷 벗어서 네 죄하고 무마하려고 그러냐? 이 속없는 년아.』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죄 애기해라. 다 알고 왔으니까 한마디라도 거짓말했다간 정말 학교 운동장에 발가벗겨 던져놓을테니까.』

『네, 말할게요.』

그녀는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반장네 집에선 한달에 10만원씩, 부반장네 집에서도 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한학기에 두번쯤 전 학부형에게 최저 1만원에서 5만원선까지 봉투를 받는다고 실토했다. 안주면 몇번이고 전화를 걸어 찾아오게도 하고, 시험지나 통신란을 통해 학교 찾아오지 않은 보복을 보여주면 학부형이 알아서 봉투를 만들어 온다는 것이었다. 봉투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저만 그러는게 아네요. 다들 그러는데요, 뭘. 저만 왜 닥달하세요.』

그녀는 궁지에 몰리자 동료 교사들을 물고 들어갔다.

『봉귀신 같은년.』

나는 사정 두지 않고 속으로 멍이 들게 잘겨주었다. 강선생은 대굴대굴 구르며 울었다.

『세계 문화협의회에 한사람 보내면 얼마씩 받았냐?』

『만원씩요.』

『몇명 보냈나?』

『무용에 10명, 음악콩쿠르에 10명…』

『누구한테 돈 받았냐?』

『박부장한테요.』

나는 대충 세계문화협의회의 수법을 메모한 뒤에 강선생에게 자서한 장을 받았다. 이후 단 한번이라도 봉투를 받는 날이면 학교에 폭로해도 좋다는 각서였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부-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물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 구함. (다운타운 지역)
낮12시~저녁8시까지, 남자 Heiper(월-토) 오후3시-11시
전화 : 921-0624

Part Time Helper 구함.
(서부지역)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가정에서 봉제품을 완전히 만드실분 구함.
전화 : 530-1046 (Mrs.한)

가게 Part Time 남자 Helper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7-0847

지렁이를 계속 잡으실분 원함.
전화 : 922-3061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Milk Store에서 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유경험자)
오전 8시-오후 4시(Downtown지역) Full Time
전화 : 624-5817 (Mrs. 차)

Part Time Sales people for painting & other Art objects.
전화 : 920-1420(저녁시간에 영어로 문의바람)

도나스숍에서 밤에만 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지역) 밤11시-아침7시
풀타임 또는 파타임. 398 Church St.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2-2727

"봉학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튼,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Mac's Milk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Full Time)
South of Eglinton & Kennedy
전화 : 261-4082 (Mrs.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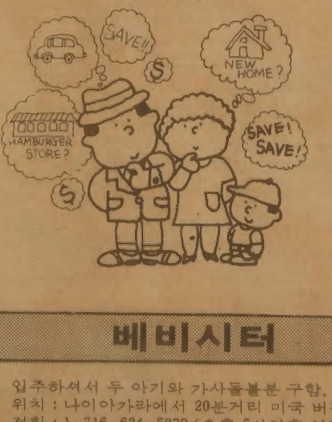
제일식품에서 일하실 아주머니 구함.
(Full Time) 전화 : 532-1054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씨알학교 운전수 구함.
동족 버스 운전하실분 구함.
전화 : 960-0074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5 일에 $ 13로
ㄸ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두 아기와 가사돌볼분 구함.
위치 : 나이아가라에서 20분거리 미국 버팔로 뉴욕.
전화 : 1-716-634-5839 (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아기보아 주시고 살림 약간 도와주실분 구함.
(일요일은 쉼) (Bloor & Jane)
전화 : (B)535-1210 (R)762-2562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Private Sale(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Double Garage)
Asking : $110,000
(Morning side & Lawrence 지역)
전화 : 281-0963 (5:00 p.m 연락바람)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나이아가라 지역 - 위치와 조건좋은 그로서리 스토아
주인 건강관계로 급매. 주매상 : 4,600-5,000불 보장
리스 : 5년+3년 2층 살림집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 요망.
전화 : 1-892-5251

VARIETY STORE 매매. (NO GROCERY)
3447 St.Clair E. at Birchmonut Rd.
전화 : 265-9000

TUCK SHOP
주매상 : $4,500. 리스 : 84년 11월까지+5년
전 화 : 272-4568 (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아파트렌트

"Sublet"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9월15일 입주가능함. 9개월 남있음. 한달 $378(유지비 포함)
3400 Weston Rd & Finch 전화 : 222-3877 (Miss 김)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집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4시이후 연락바람)

Town House 방세 놓음.(Don Mills 지역)
직장여성이나 혼자 사시는 여자분 환영($170/M)
Hwy 401 & D.V.P.에 가까움. 전화: 449-1913 (오후8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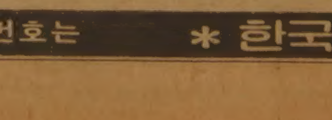
셋방 있음(1 Bed Rm+Kitchen) $200/M.
9월1일 입주가능. 하이드로 포함.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1:00p.m.-10:00p.m.) Mr. Kim

4 Bed Room 집전체를 싸게 세놉니다.
Branpton 전화 : 1-632-9313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 * * * * * * * * * *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